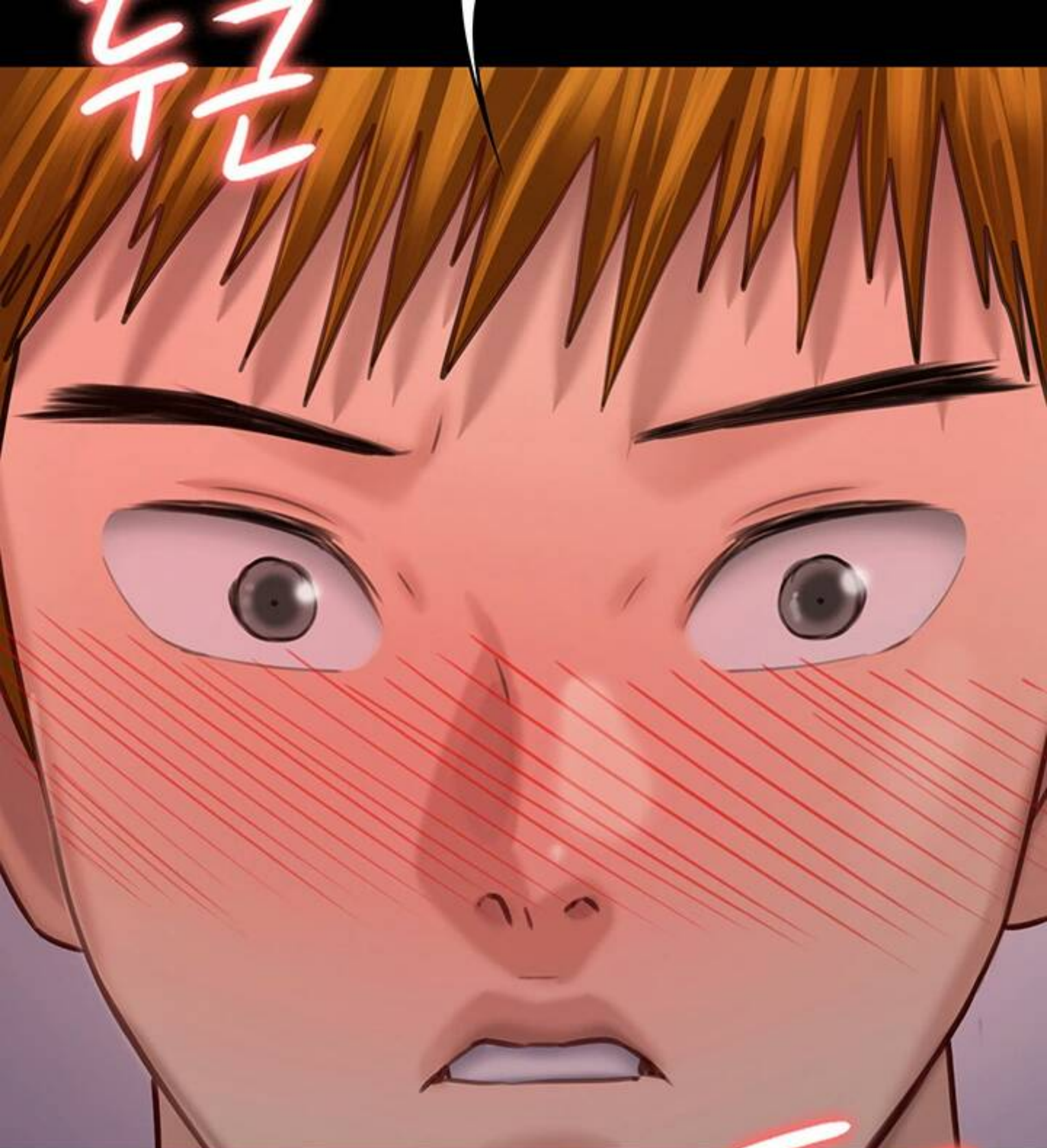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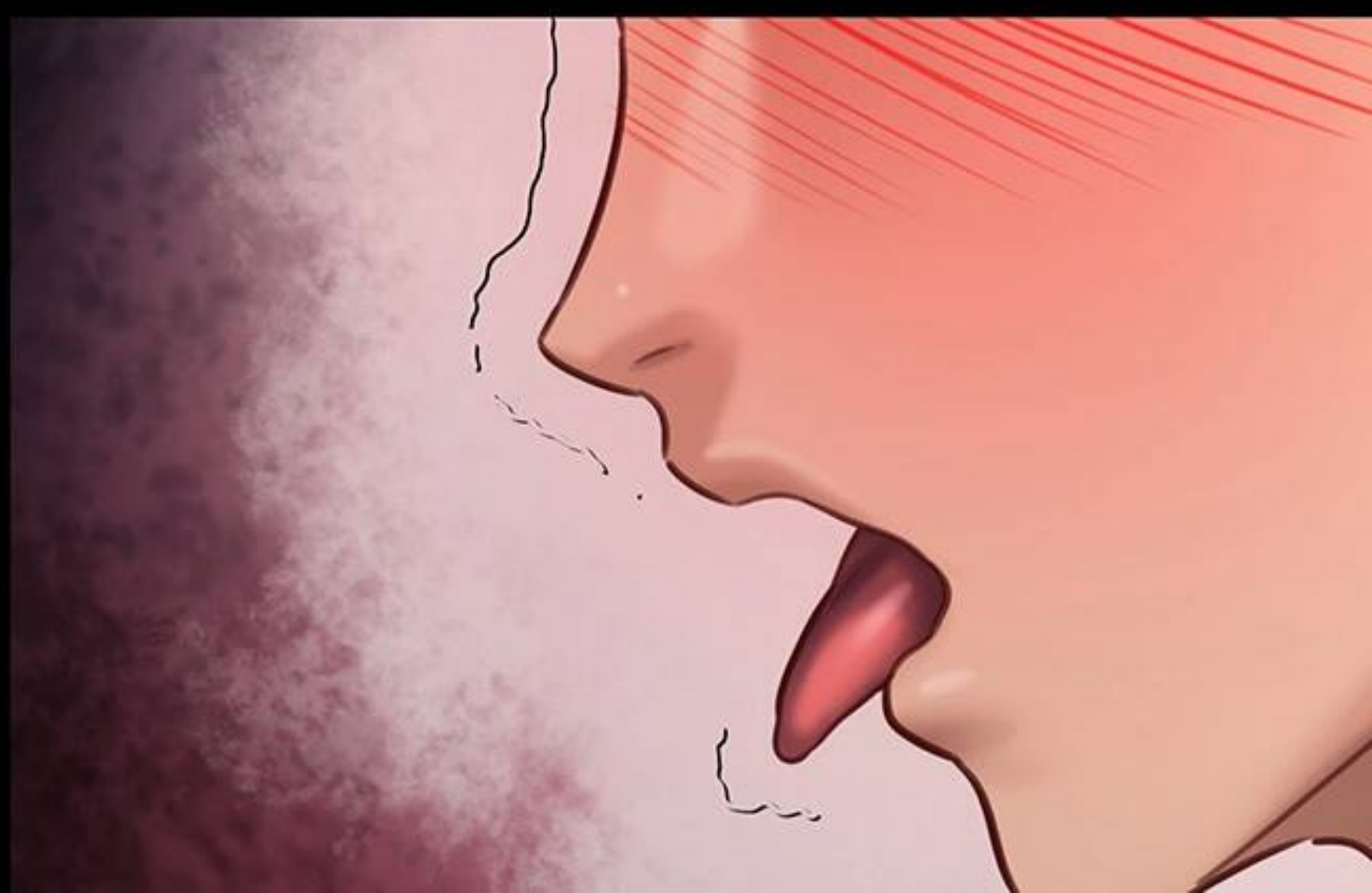
그렇게 뚫어지게
보지 마~
부끄럽단 말이야...!

예뻐... 정말 예뻐...
예쁜 꽃 같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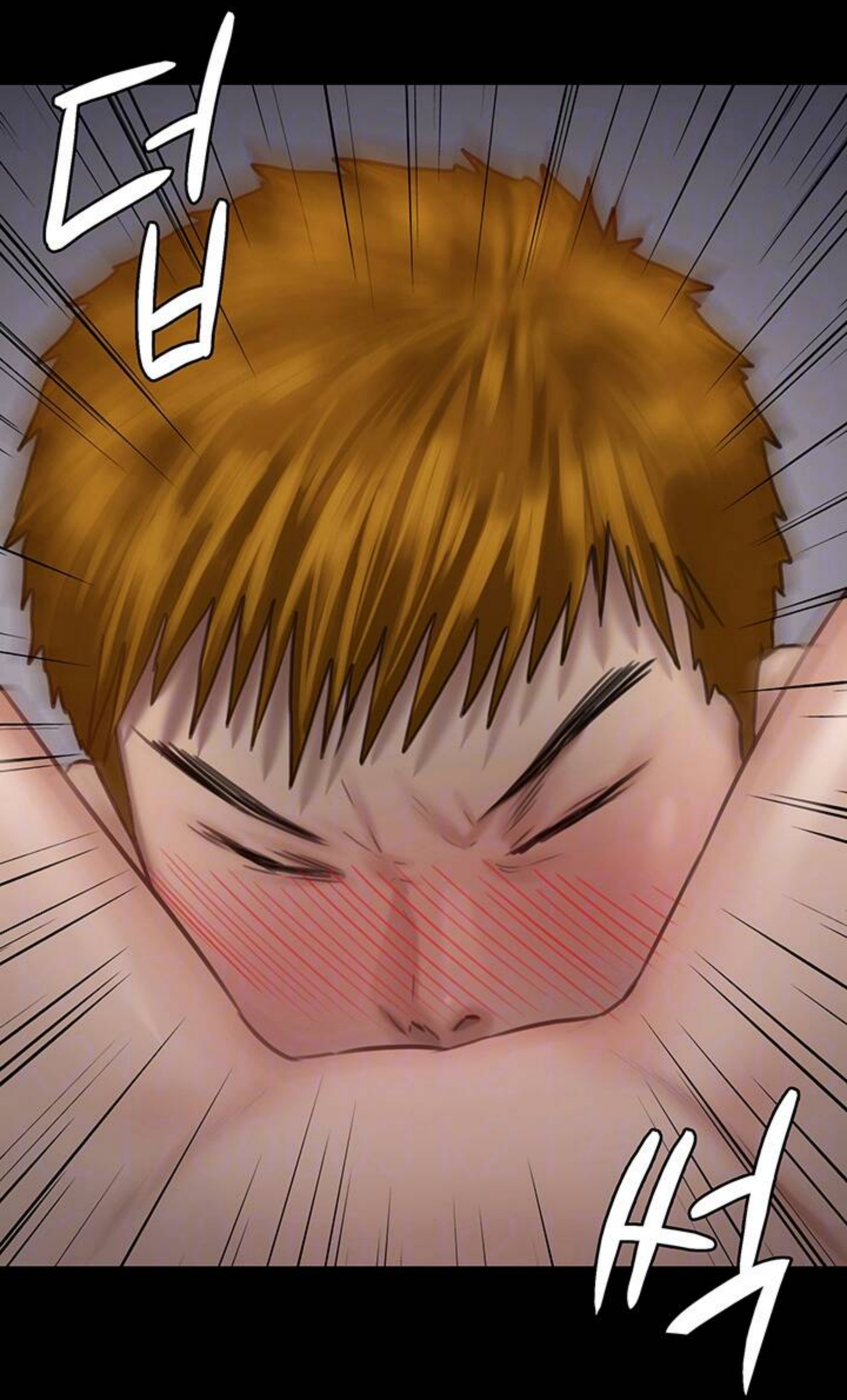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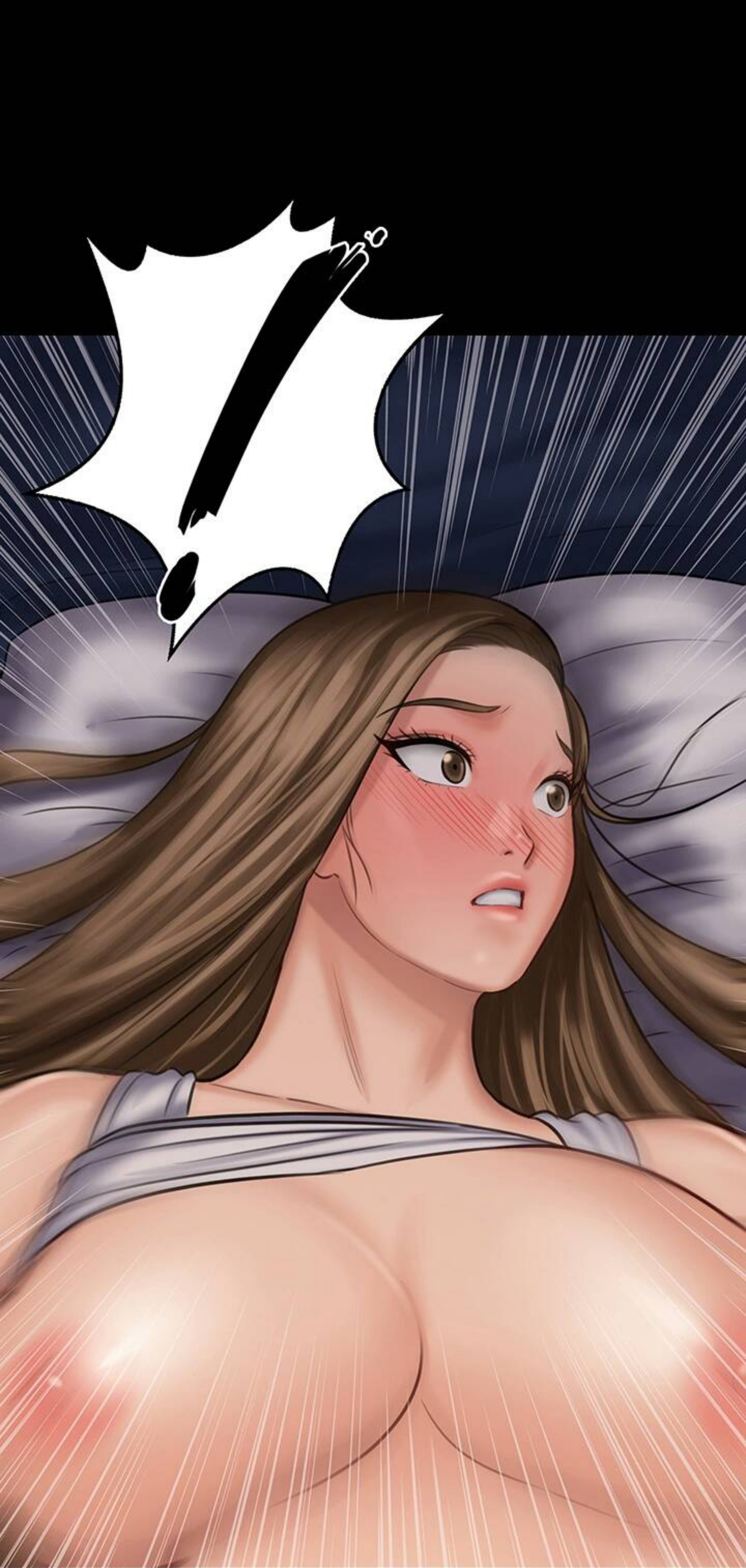
두근

그 순간
나도 모르게...



뭐에 홀린 듯
달리의 그곳으로
혀가 향하고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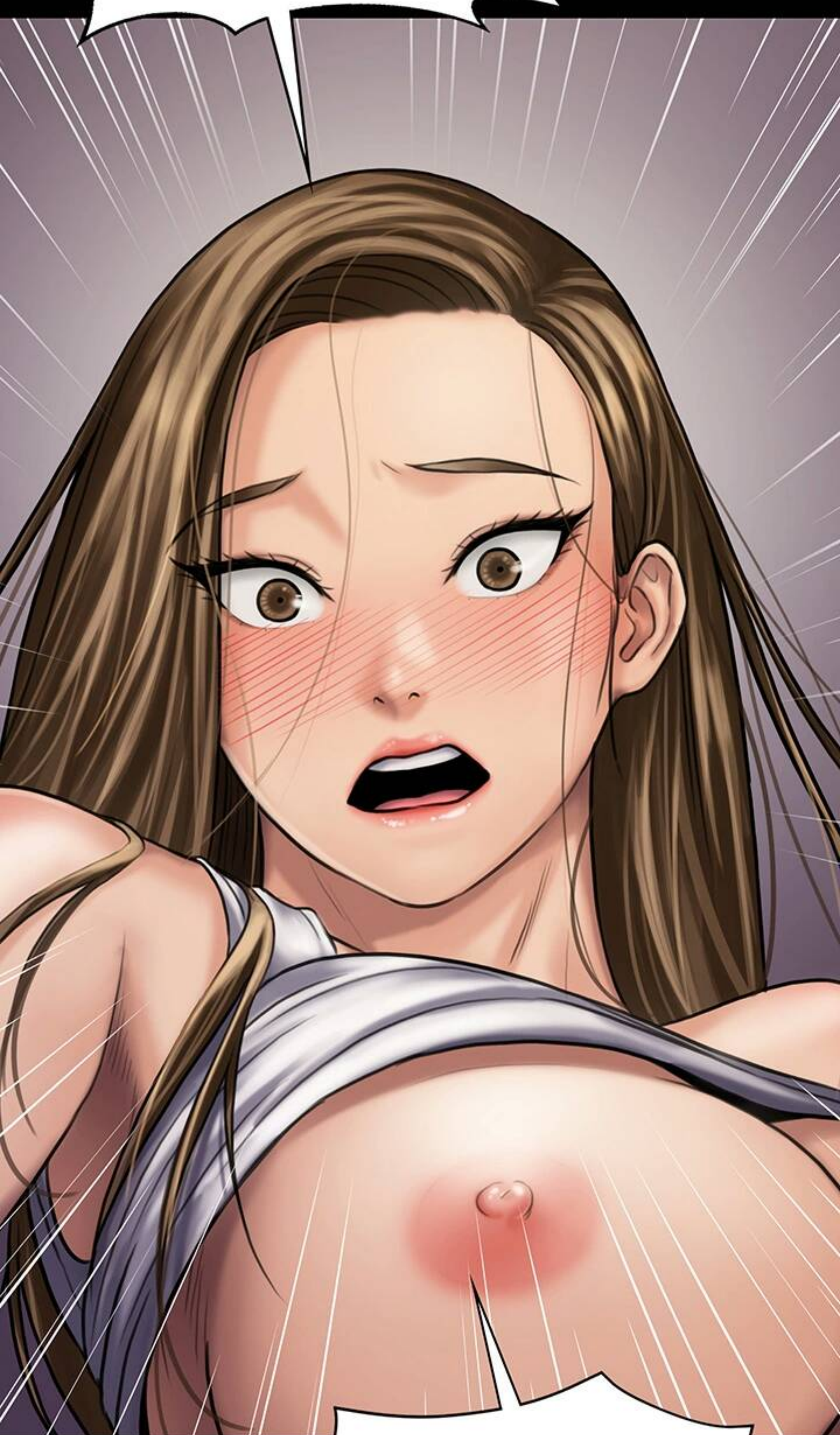


집주인 딸내미

스토리 : 활화산

작 화 : 벤프

야... 야...!



너... 너 뭐 하는
거야?!

입으로 하지 마...
싫어!



보기만 해!
부끄럽단 말이야!





야!
안준표...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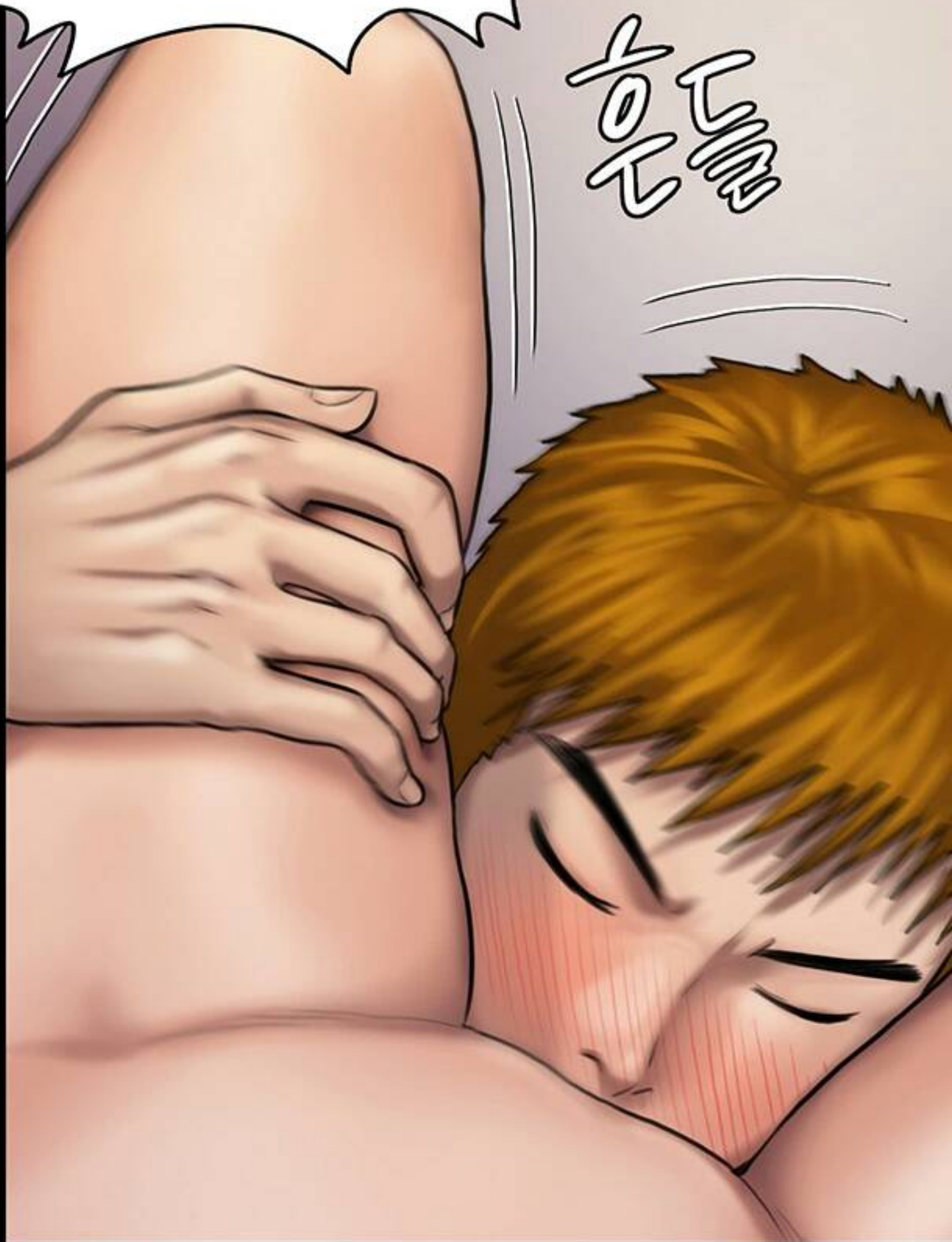
하지 말라구우~



야아~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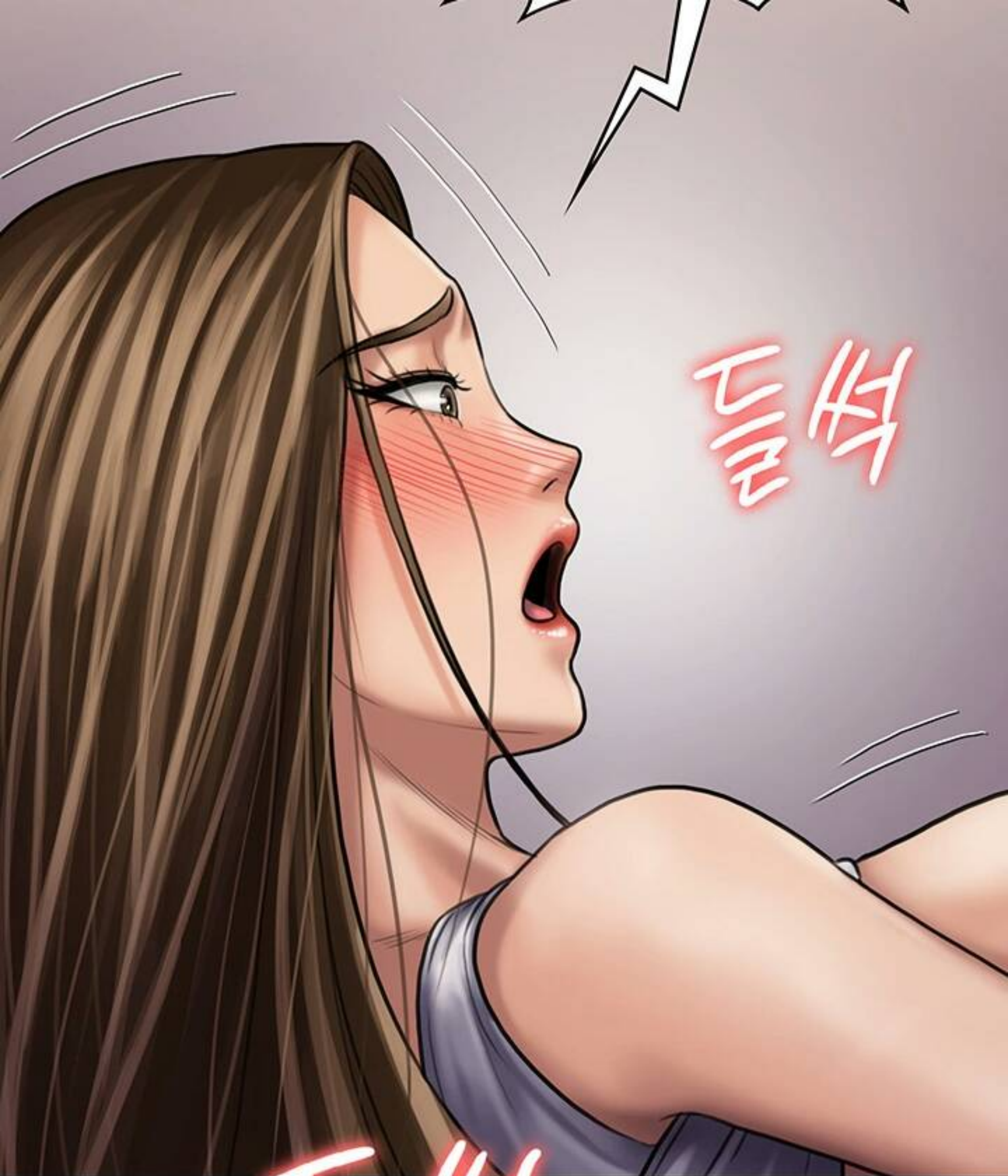
입으로 하는 건
싫다구~!

후드득



안준표오오~!

너어어~!



그런데

그런데



와

악







가슴!
바!



하아아...



내근근

아아악

오근근

후음!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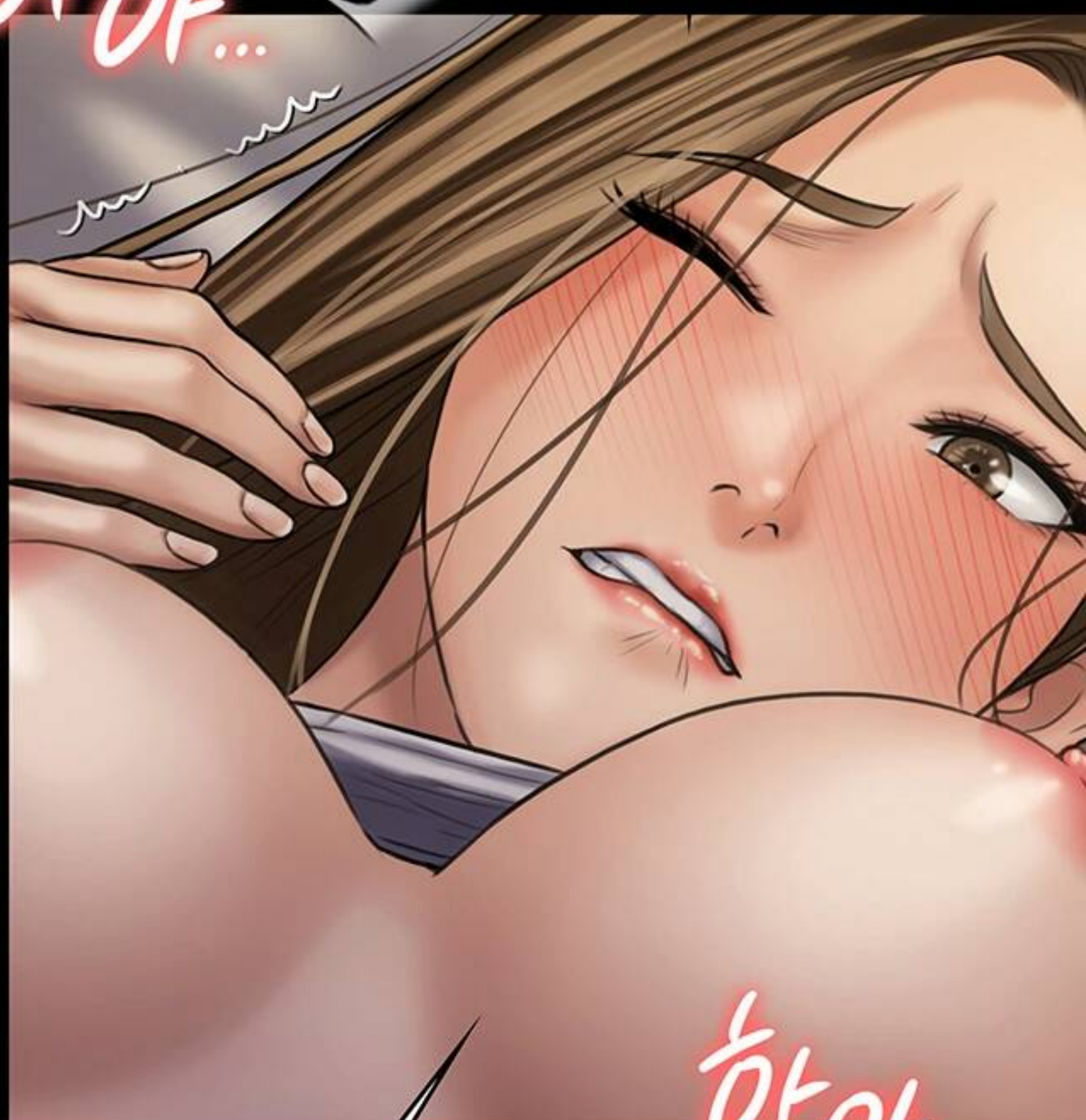
하아..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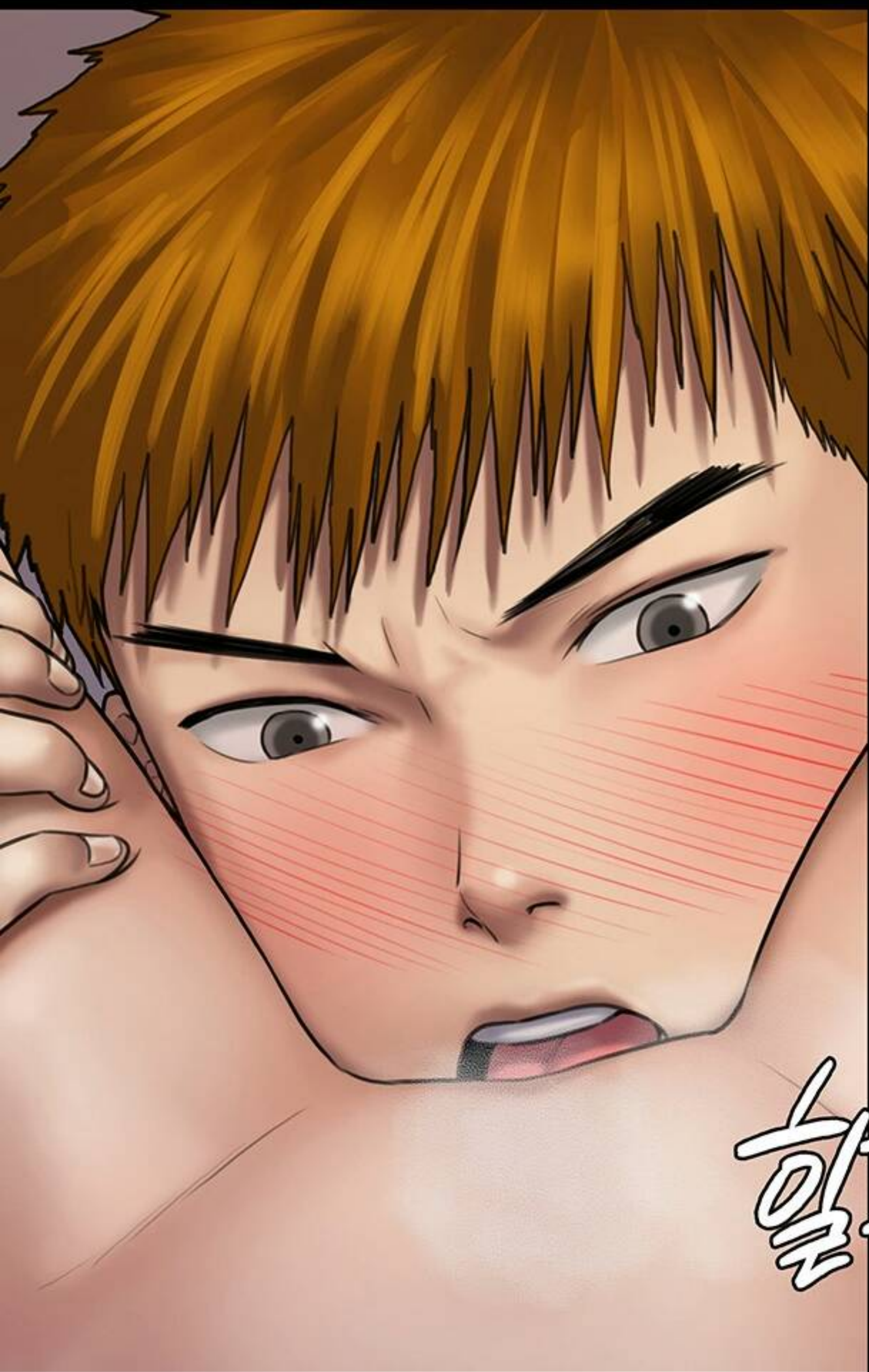
주... 준표야...

하아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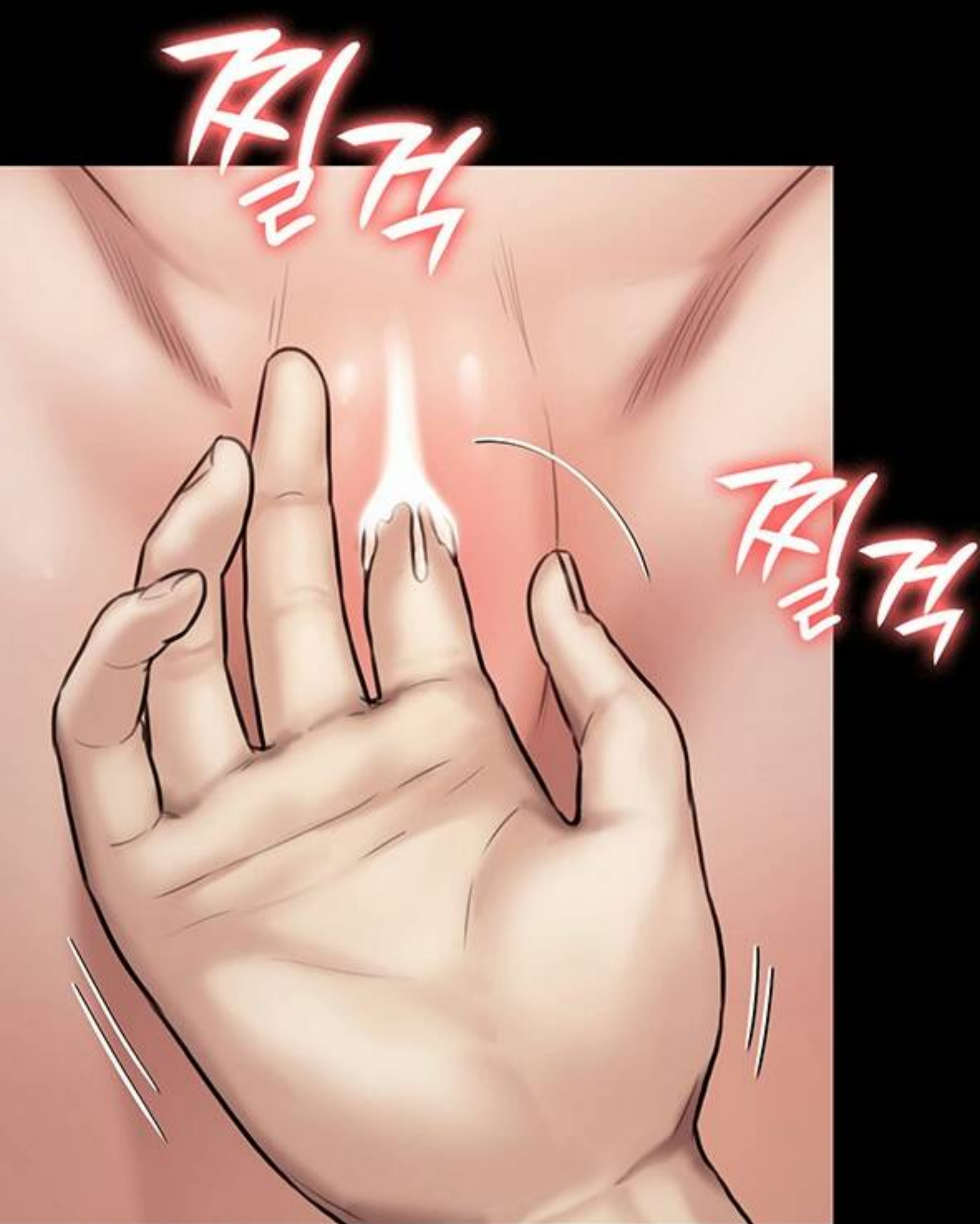
하아...

이상해...
그만해...



힘

후!



처음부터 ㅂ지를
존나 쑤셔대면 안 돼.



처음엔
요렇게 요렇게~
살살 쓸듯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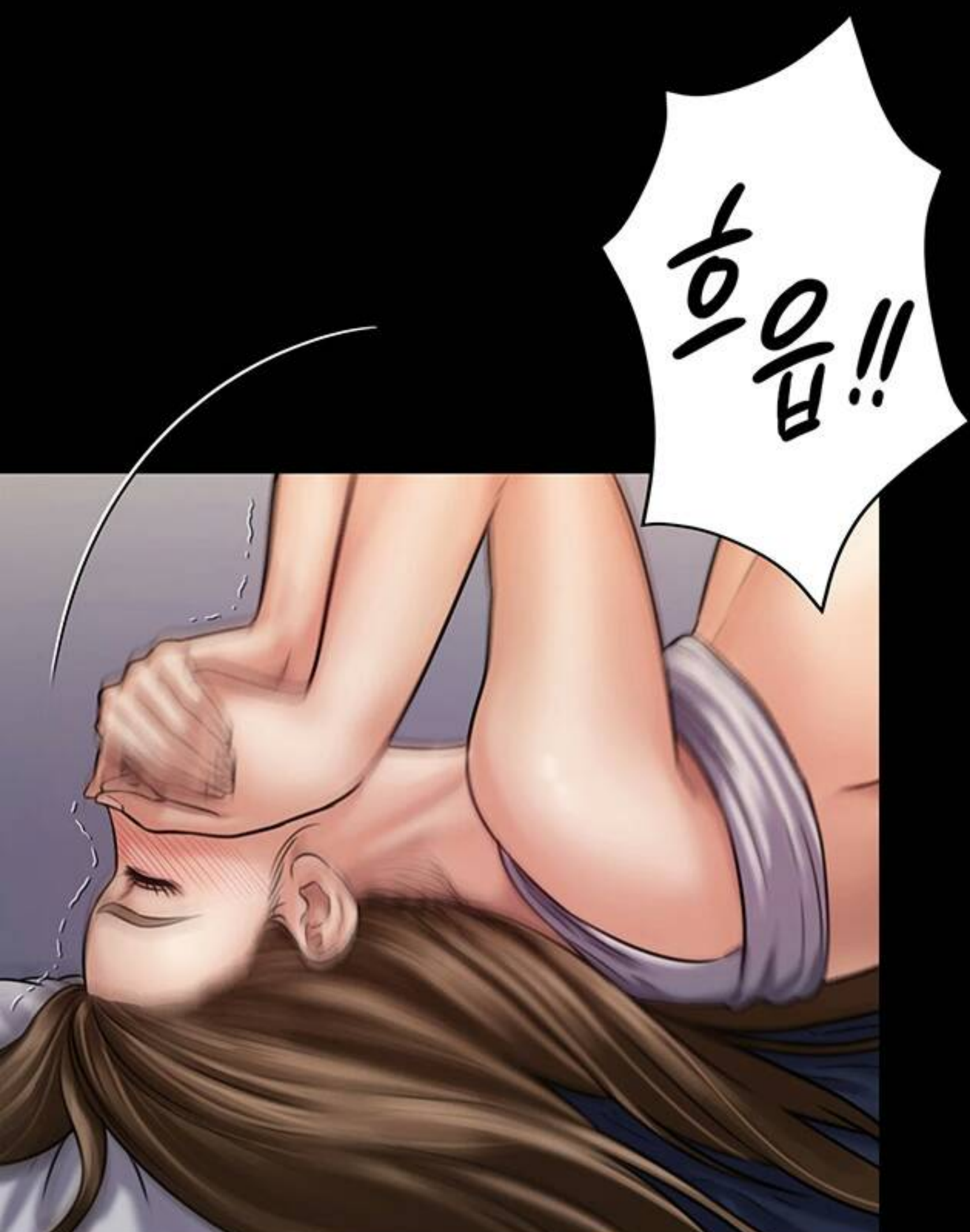
살랑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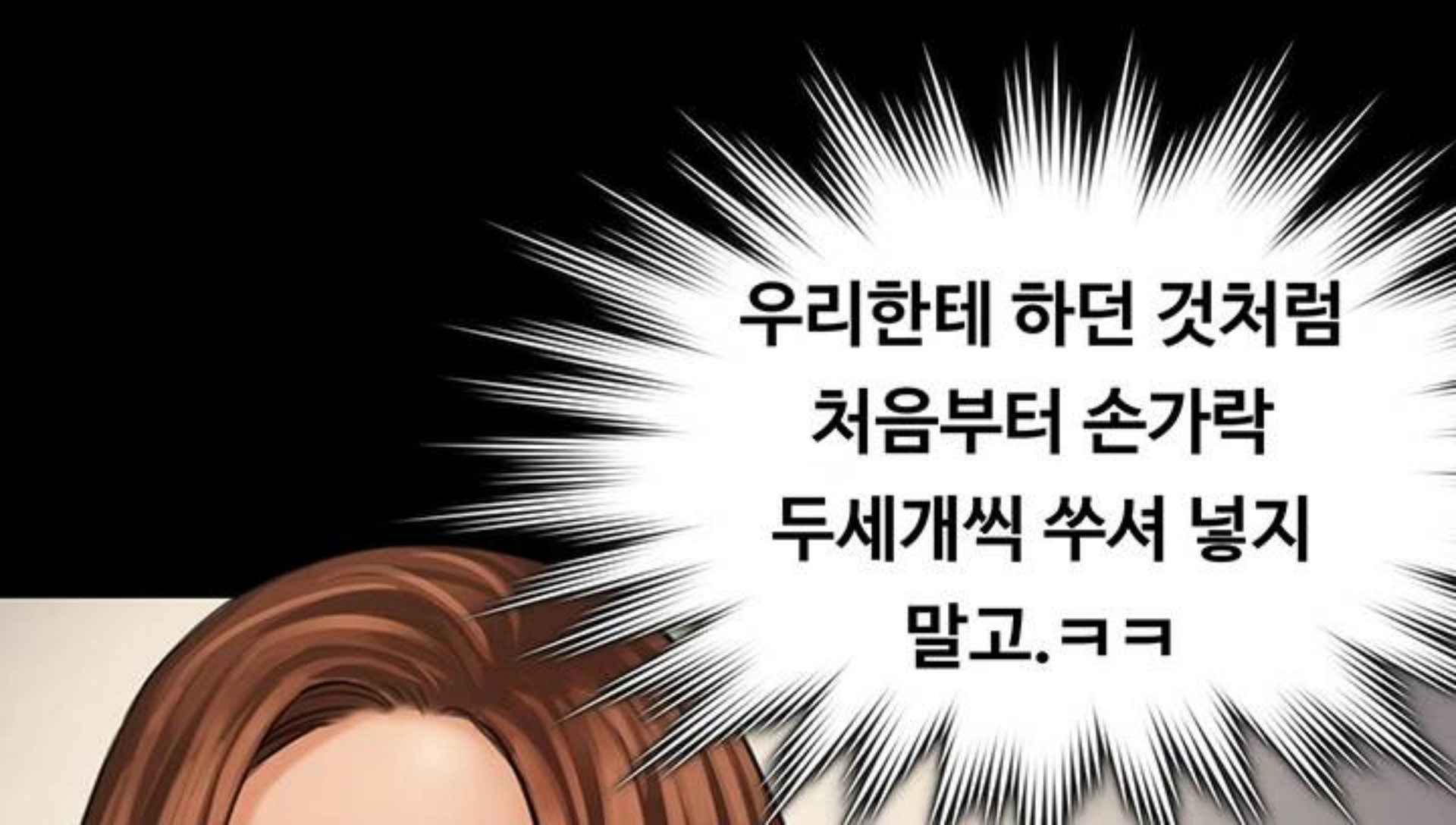
꺾꺾



꺾꺾

살랑~







유달리 그녀는 아다니까
손가락 하나면 충분해.





!!음

야!
손가락 하나라고
했다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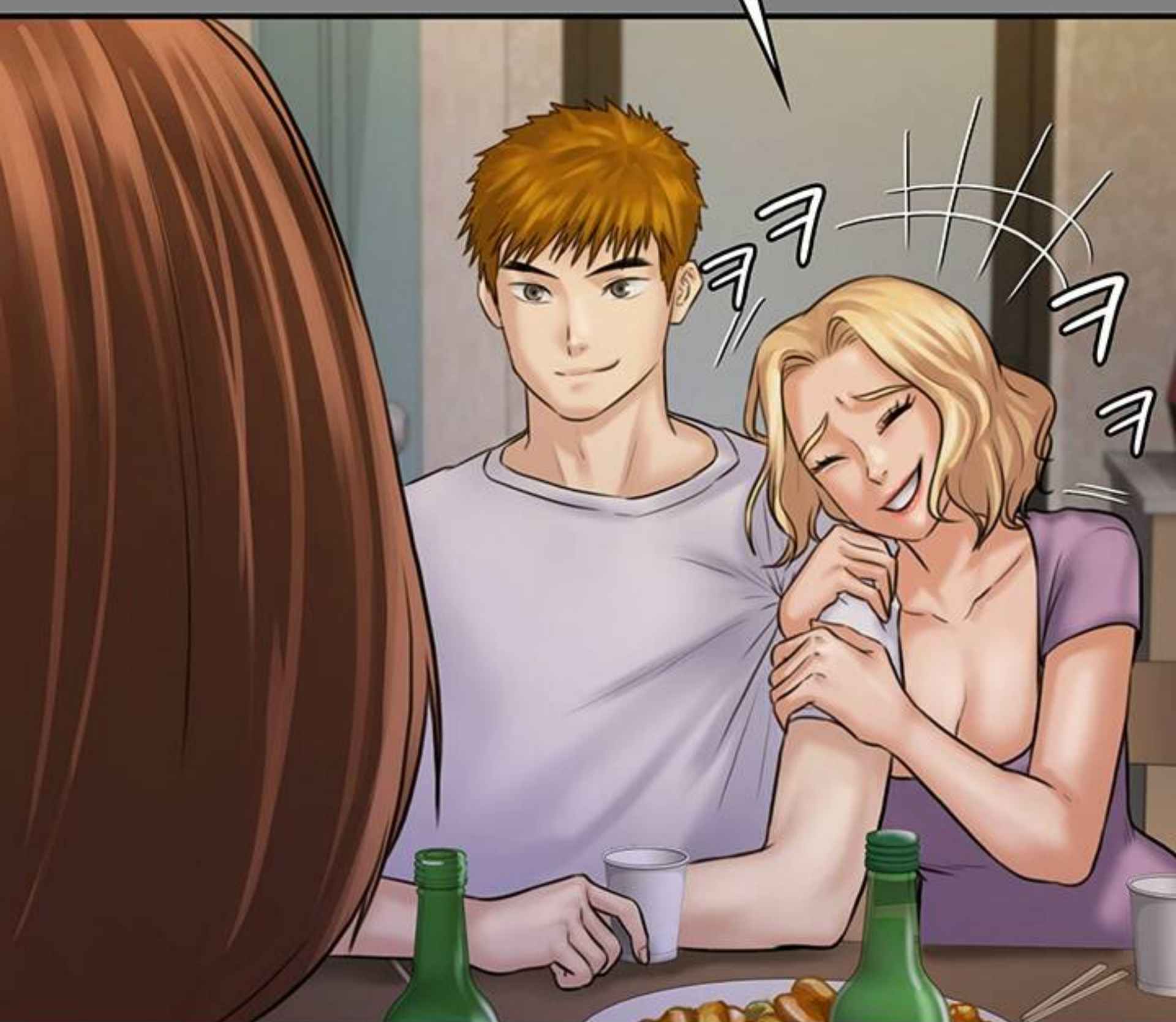
엄지 박으면
안 된다? ㅋㅋ



검지야,
검지! ㅋㅋ



엄지래. ㅋㅋ
허민
존나 웃겨. ㅋㅋ



근데... 달리가
아다인 걸 두 사람은
어떻게 알게 된 거야?



하태수랑 사귀기까지
한 애를 두 사람이
아다로 믿고 있는 게
신기해서...



흥

달리년 아다인 걸
믿을 수밖에
없는 이유가 있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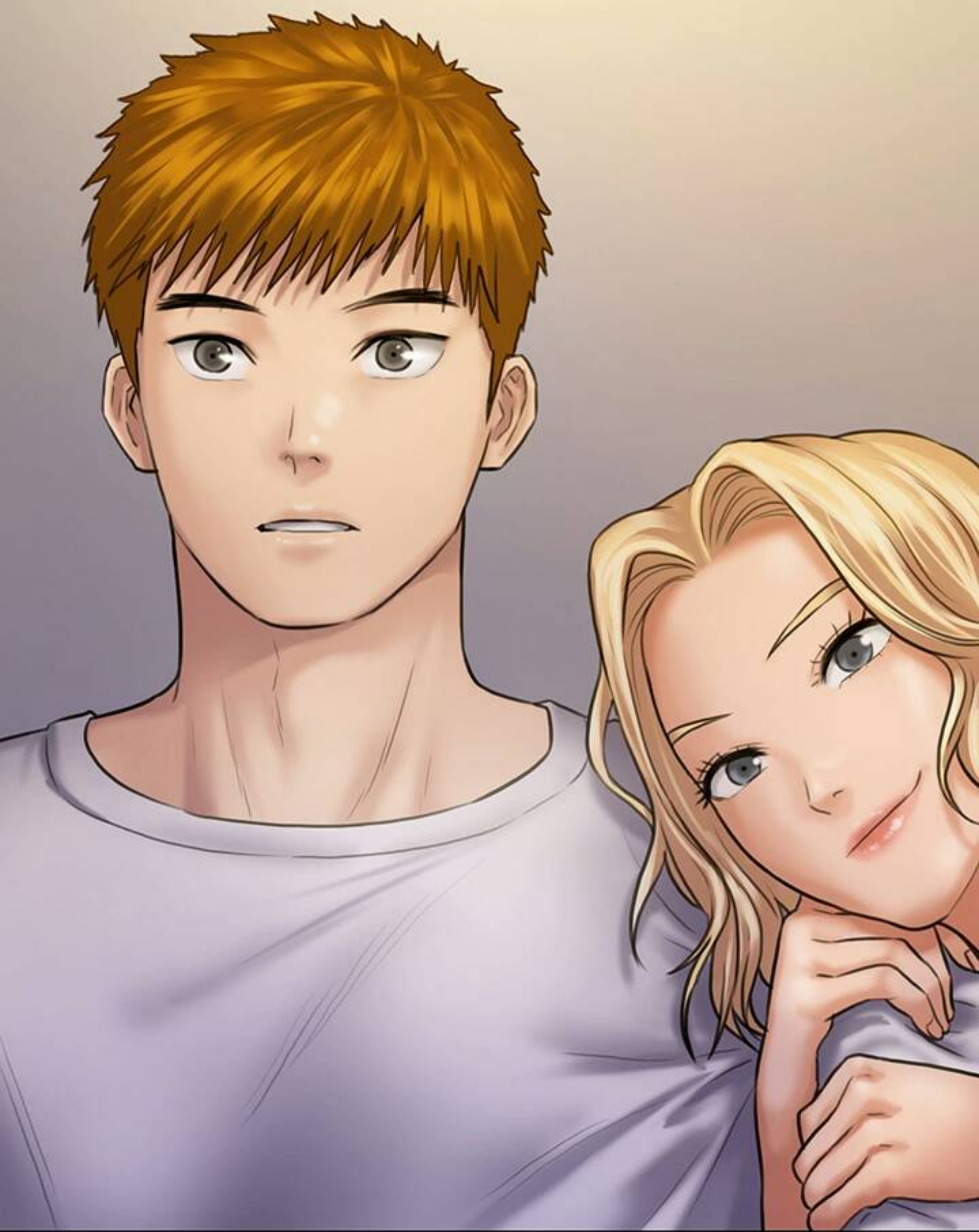
하태수가
그년 따는 거
실패할 때마다,

존나 뺨쳐서
여기로 왔었거든.



우리한테

대신 풀려고.ㅋ





어머! 태수야.
설마... 오늘도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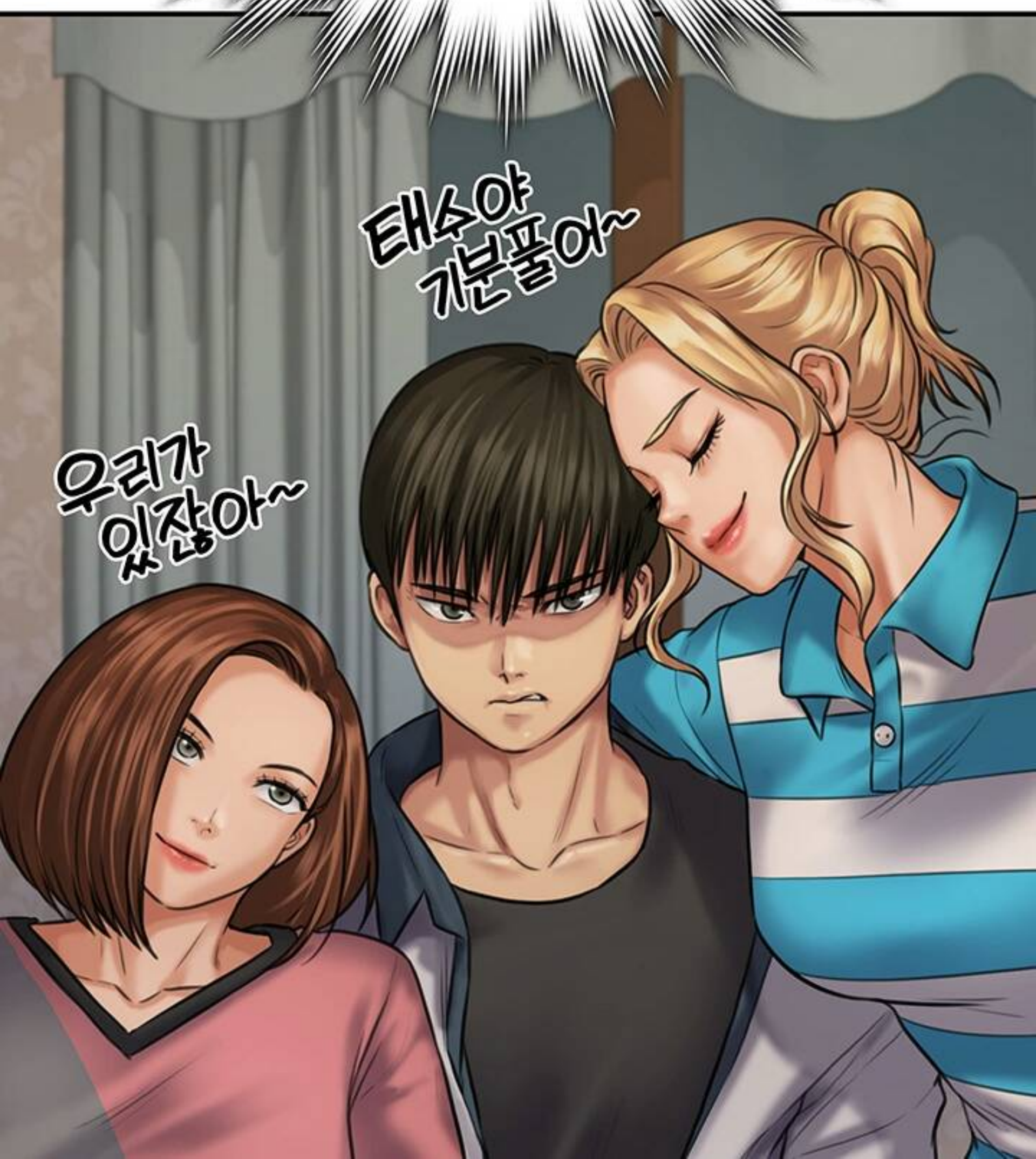
유달리
개 싸발년!

부도록



천봉고년이면
천봉고년답게 굴어야지,
어디서 같잖게
깨끗한 척이야?!

하태수가 존심에
남자 따까리들 앞에선
유달리 따먹은 척
존나 맛있다고 떠들고
다녔지만...





언니랑 내 앞에선
찌질한 모습
다 보여줬었거든.ㅋ

안준표,
네가 정말 ○창 까고
유달리 안 따먹었다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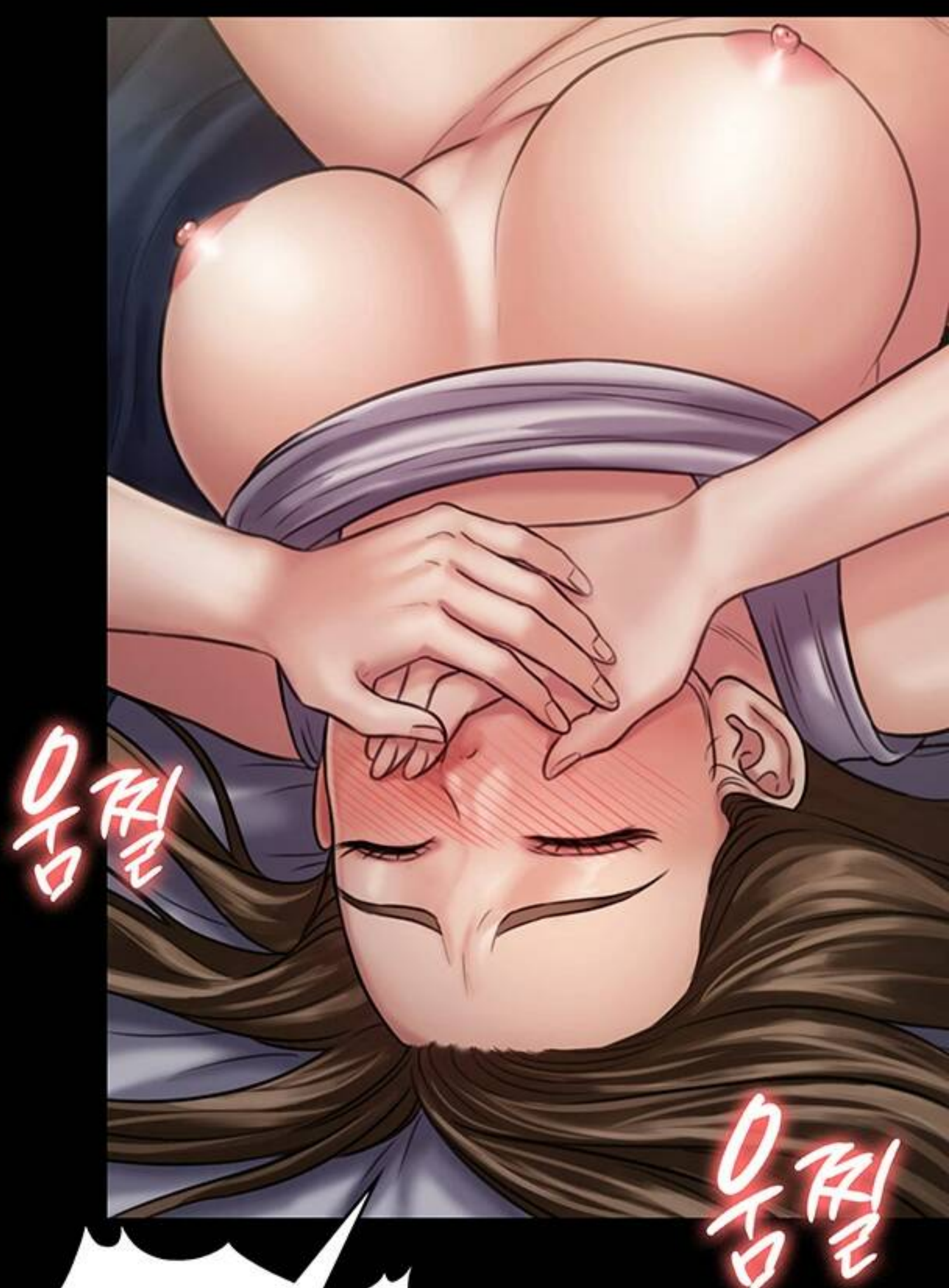


네가 함
따 봐.



너한테는
줄 것 같은데?





으흠...

하태수한테 조차
처음을 허락 안 한
달리가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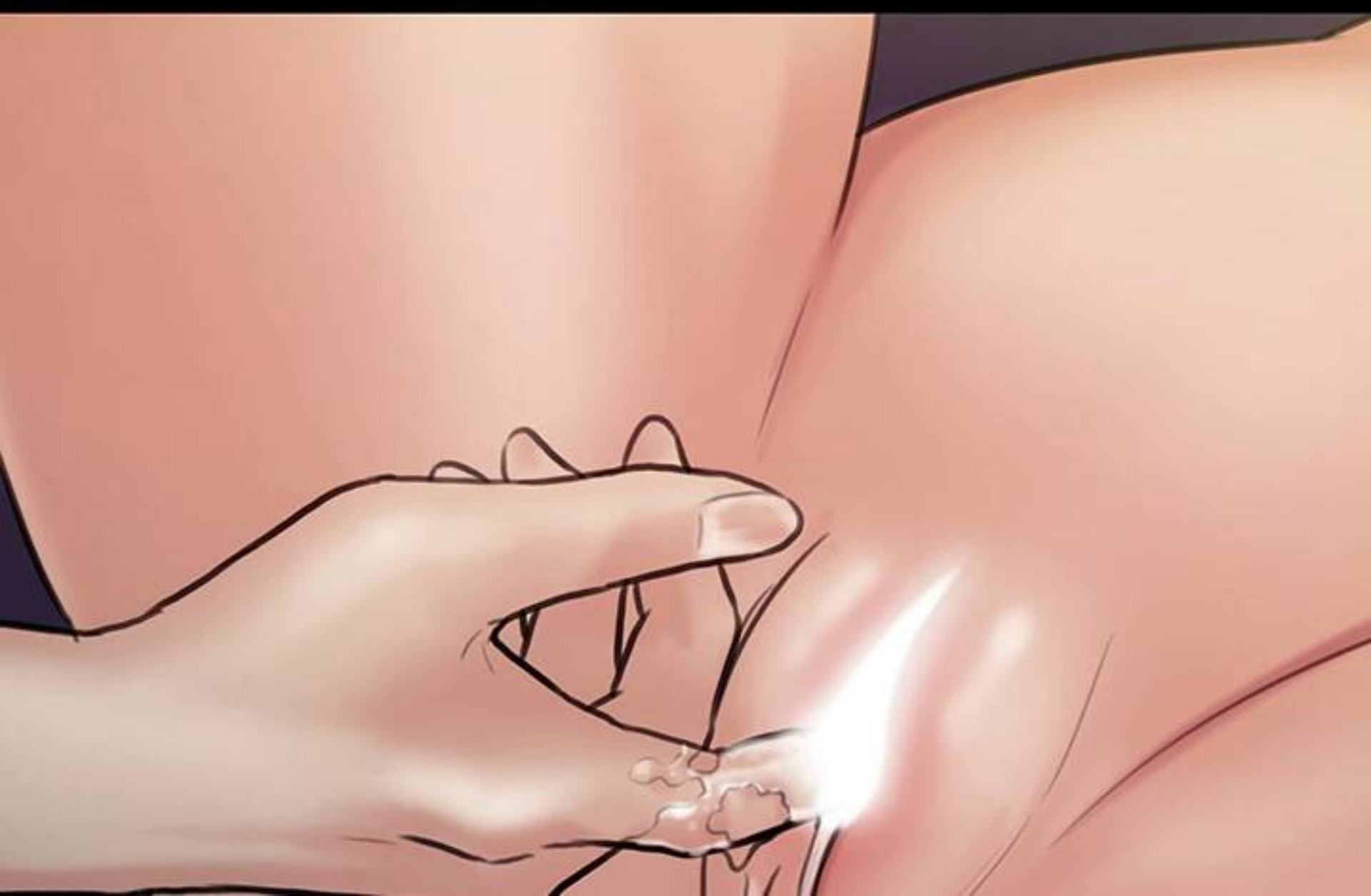


으흠...

쉴게

정말 나한테는
허락을 할까...?!

땀
땀





파르르

하아...

하아...

스윽



달리는
떨고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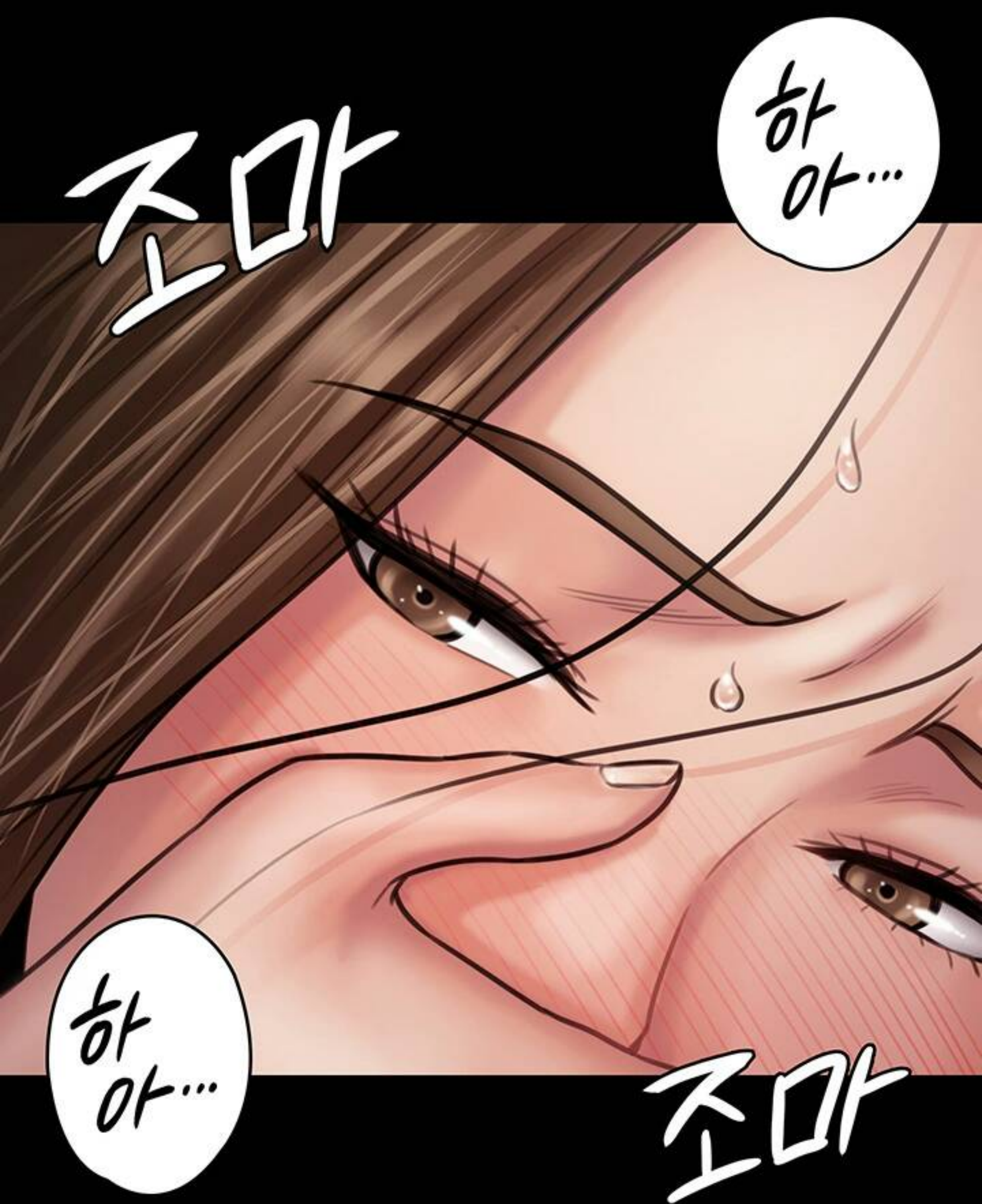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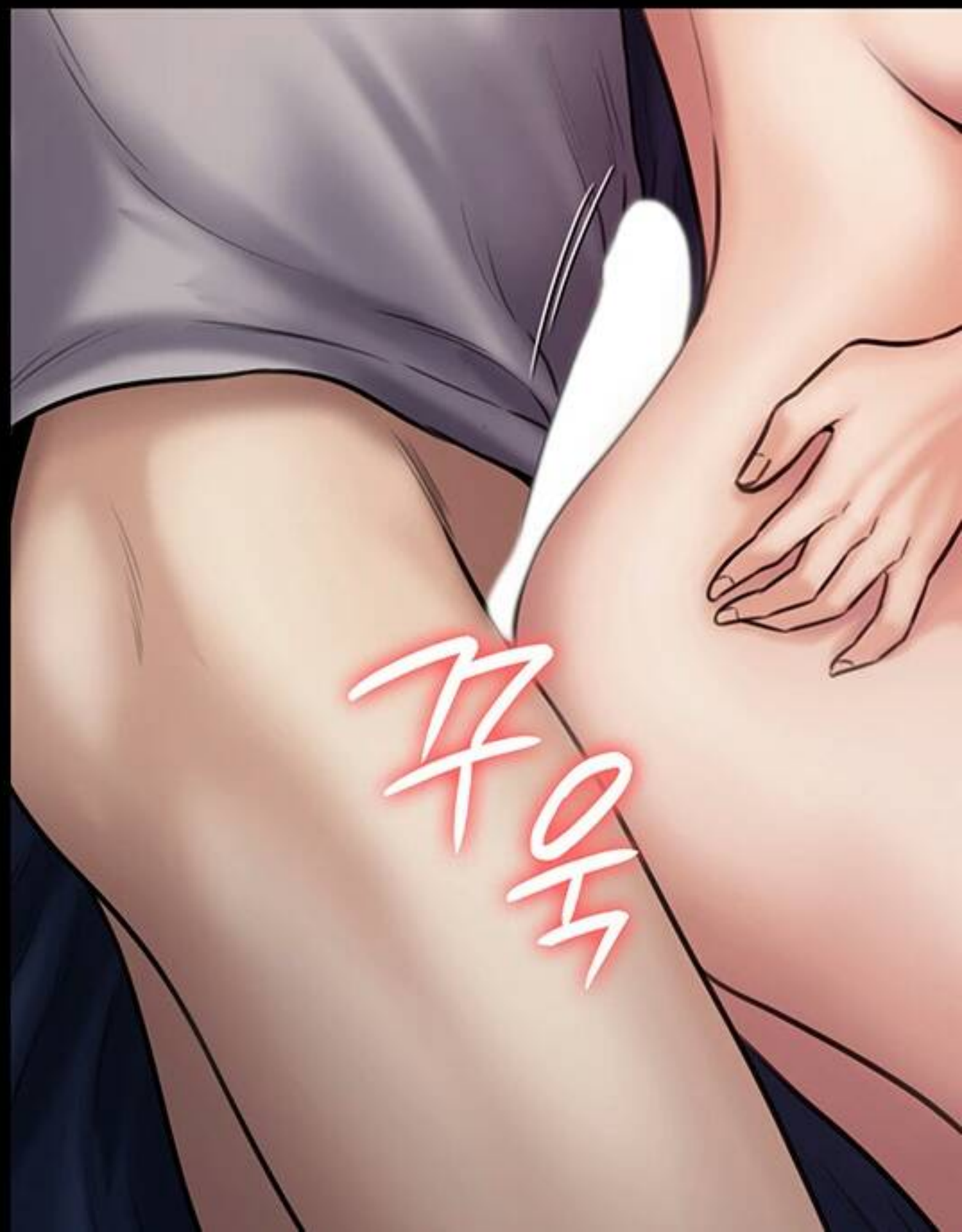
난 그런 달리를
뒤에서 안았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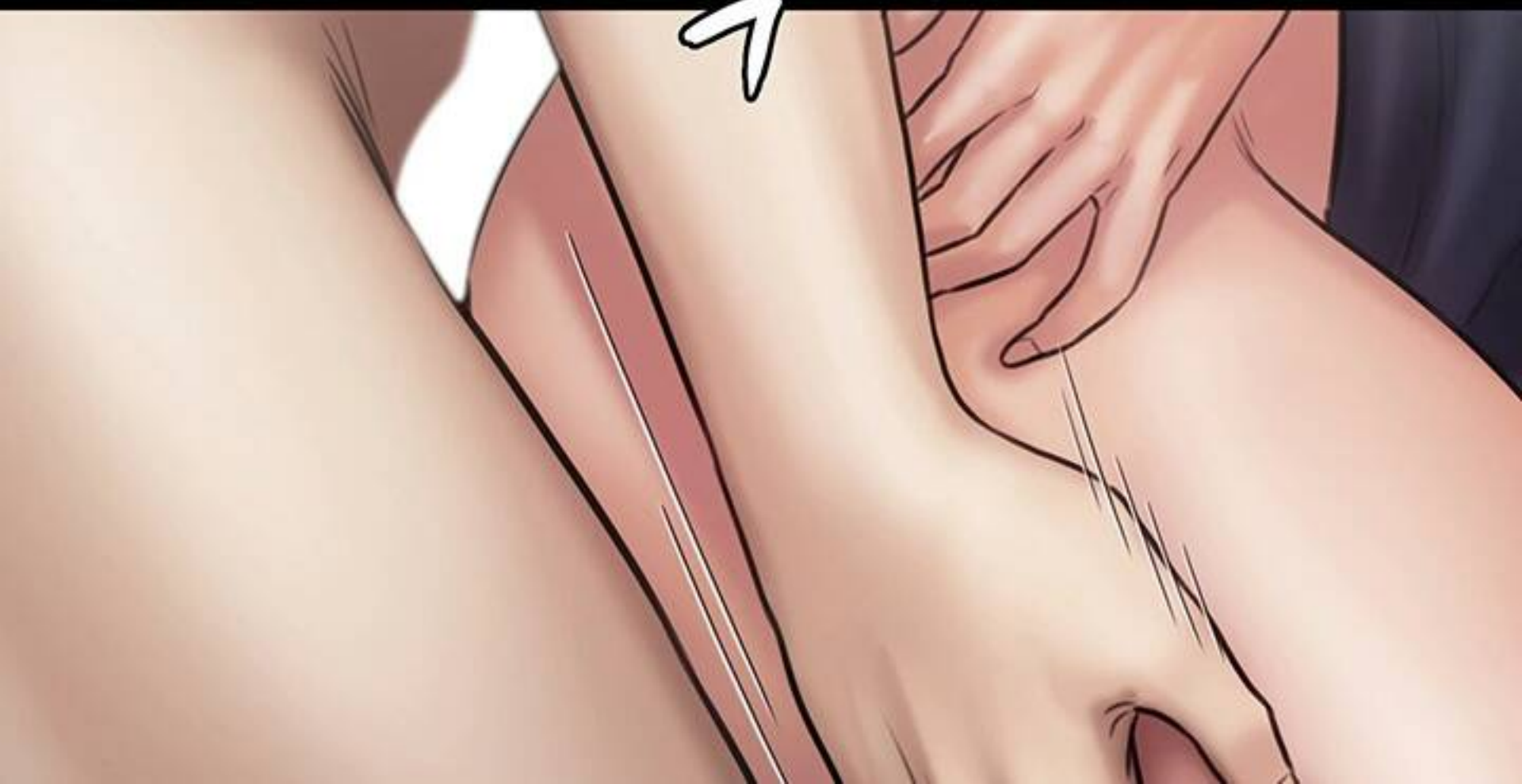
기추가...!



설마... 갑자기
넣는 건 아니겠지...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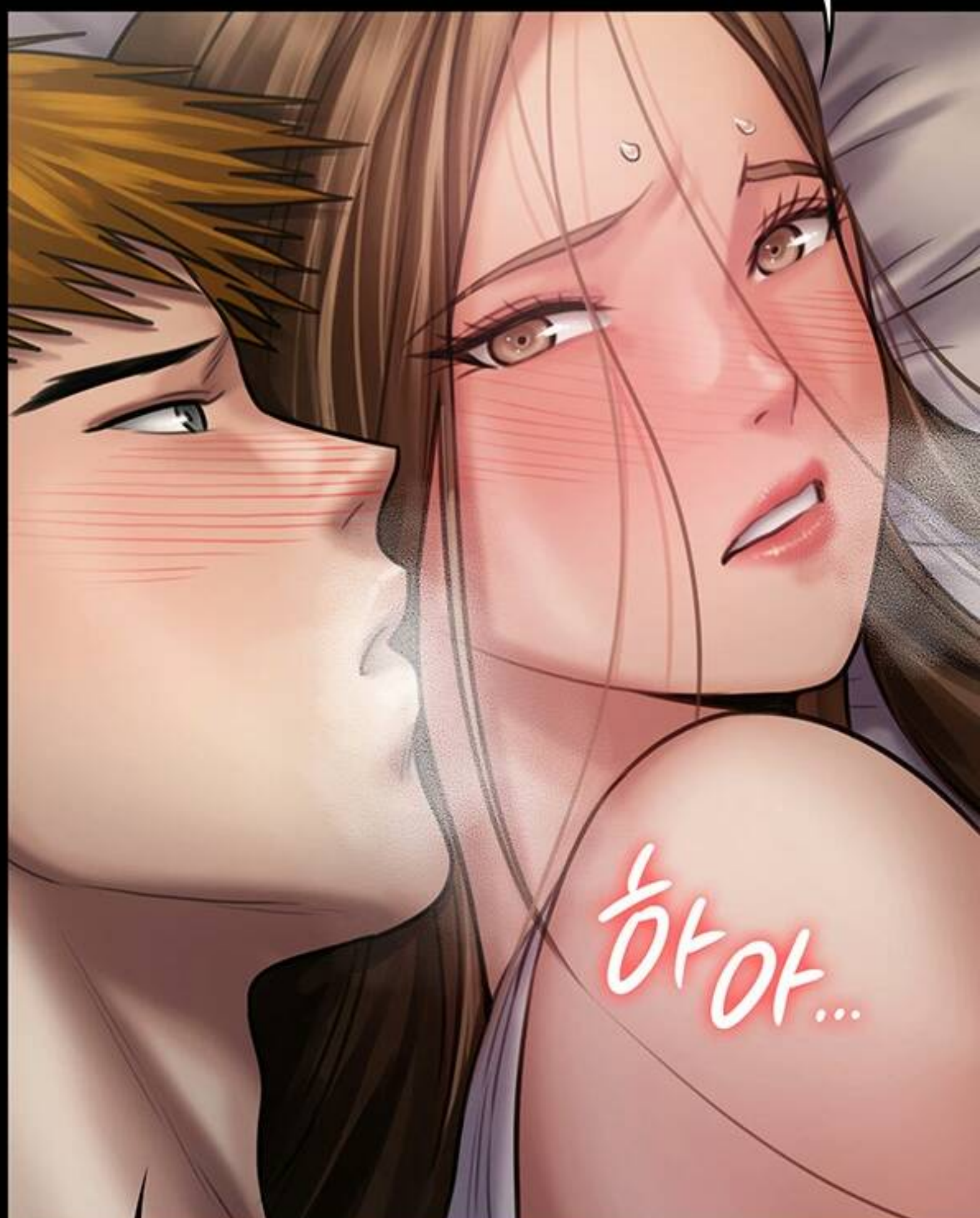
쭈욱





스윙

야... 안준표오~
우리 이러면
안 되잖아...



너무
흥분돼서 그래...
걱정 마...
부비기만 할게...

갑자기 ㄱ추
넣으면 안 돼...?

부비적

부비적

응...

하아...

부비적

부비적

흐으...으

부비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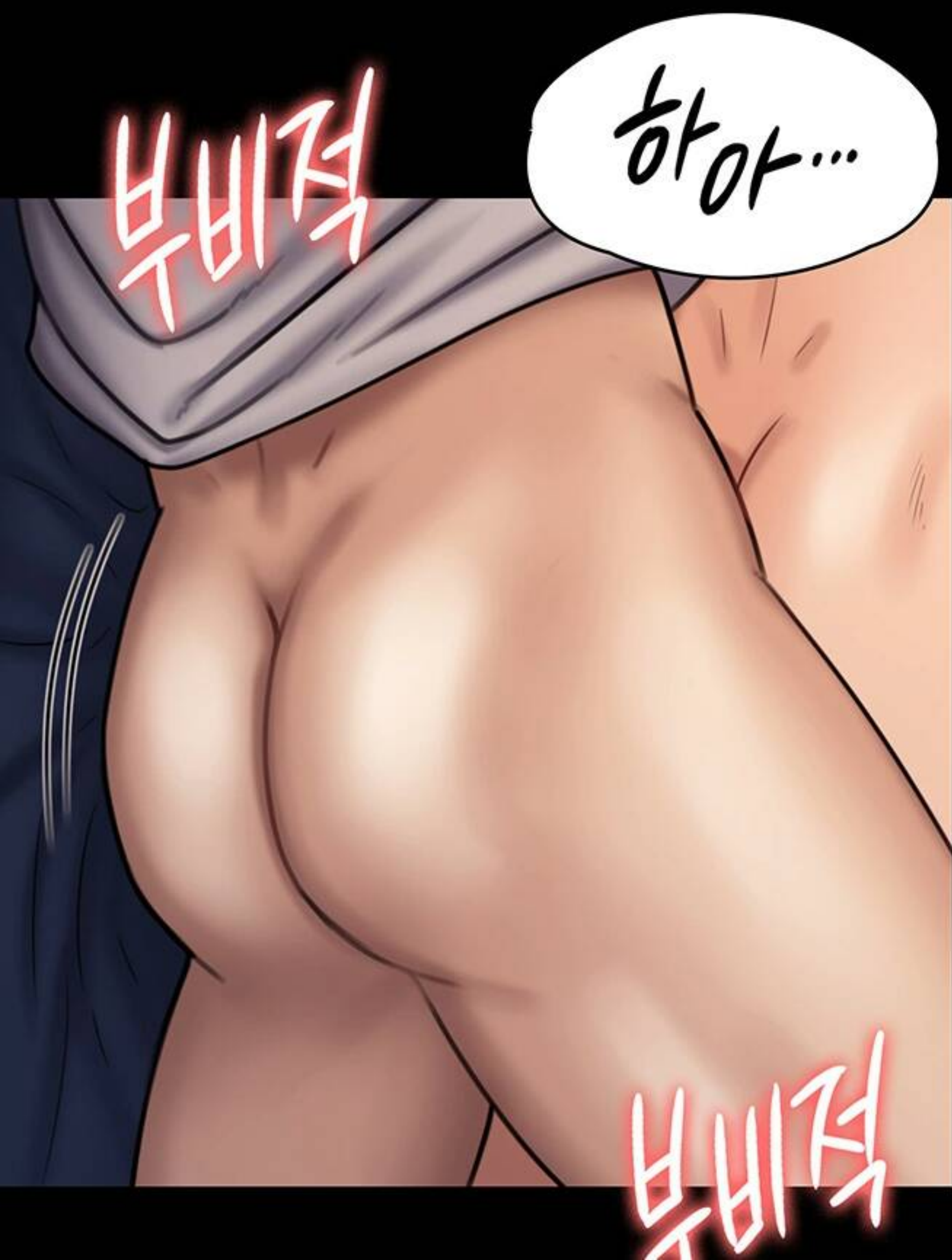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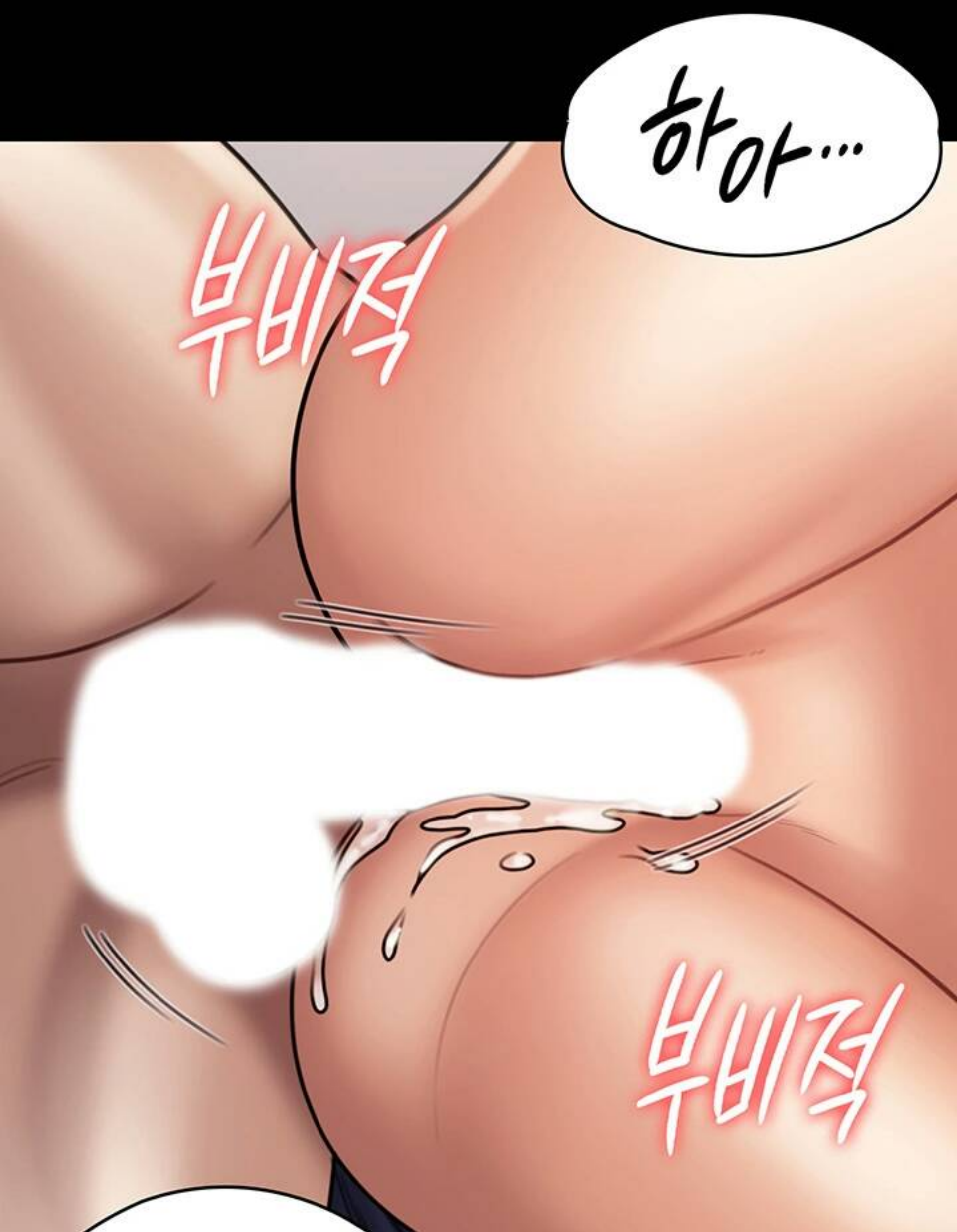
부비적

하아...

부비적



부비적



하
임!

부비적

부비적

달리야.
키스...

부비적



부비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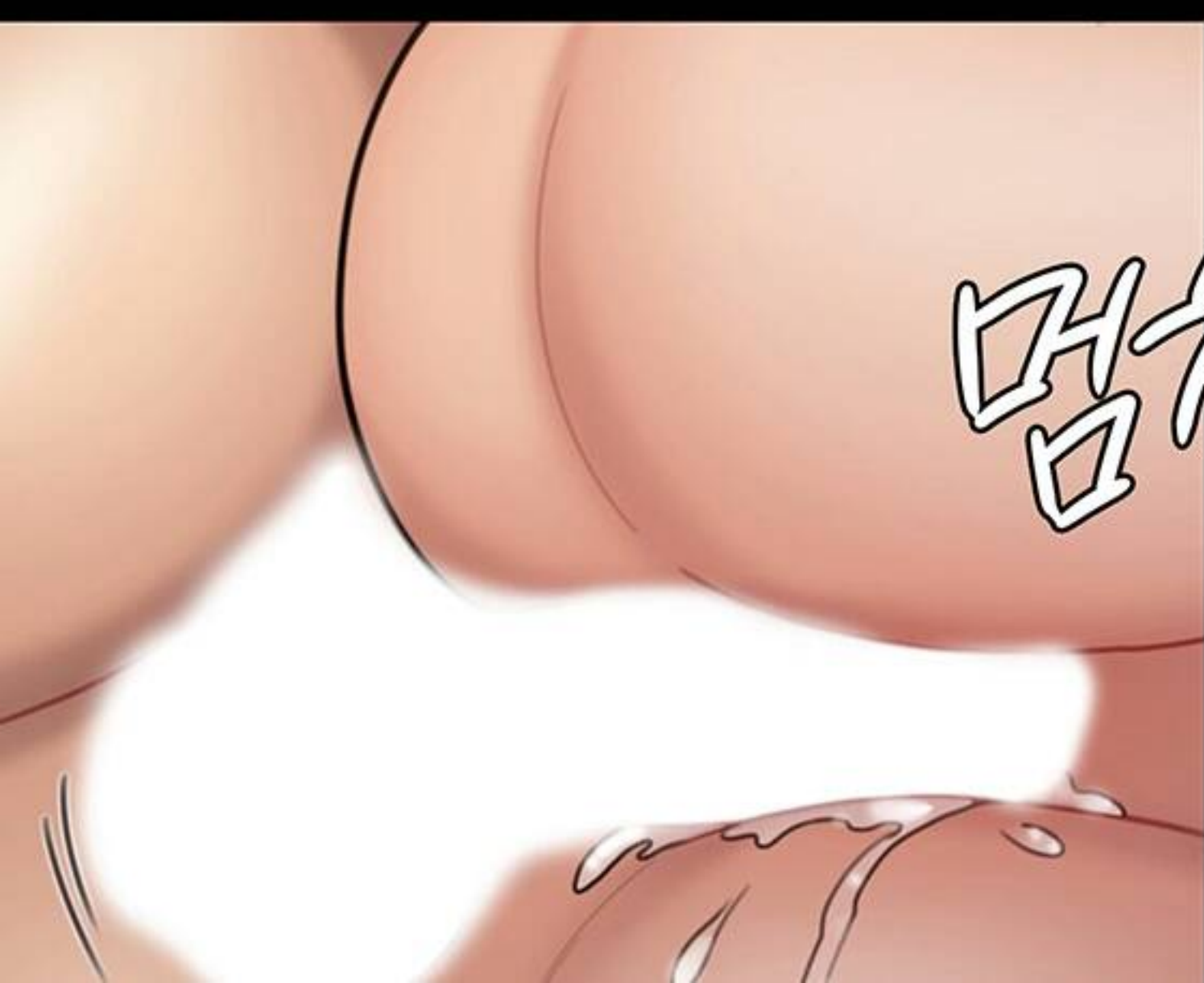
쭉쭉

스윙



부비적

부비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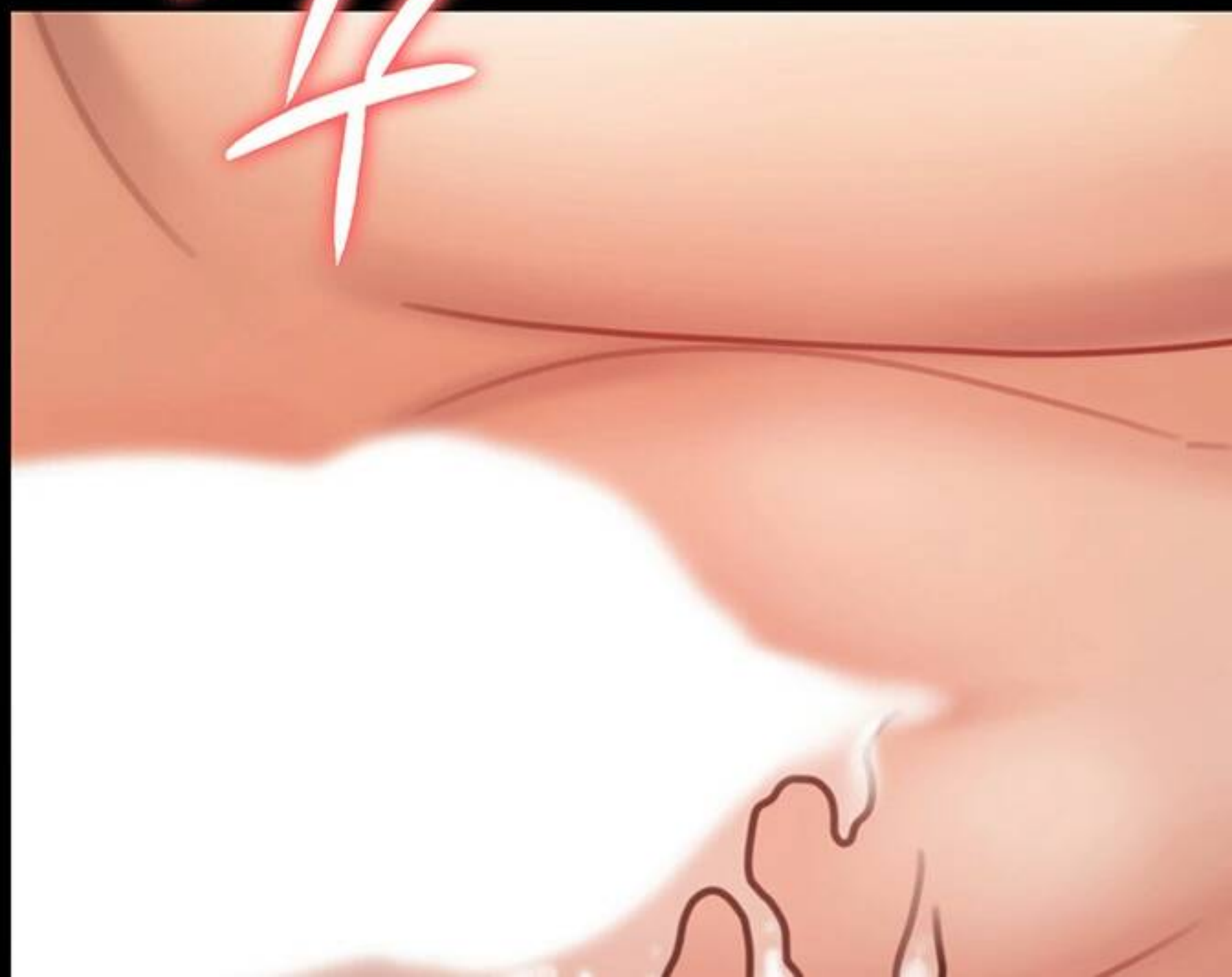


츄적

하아...

츄적

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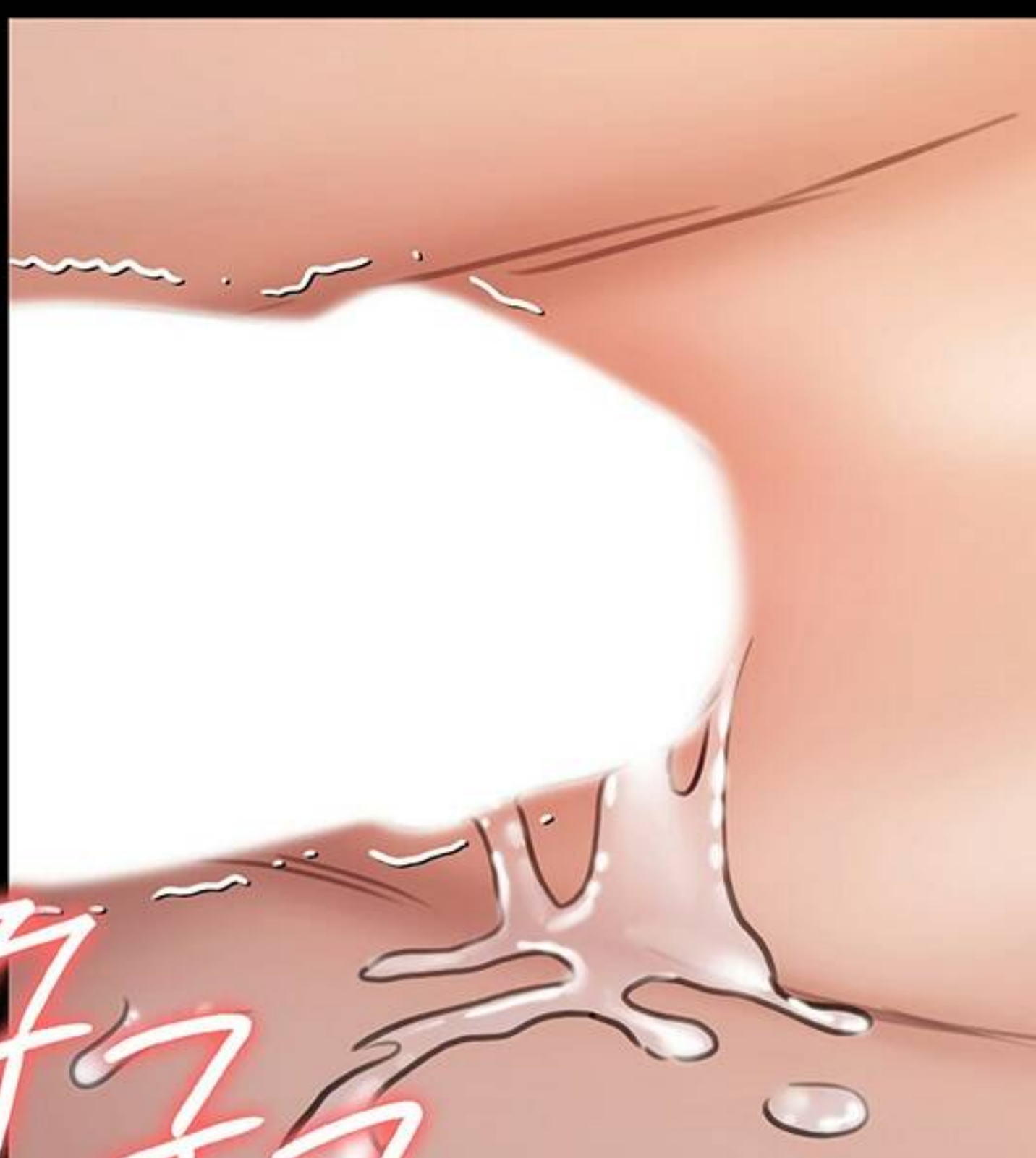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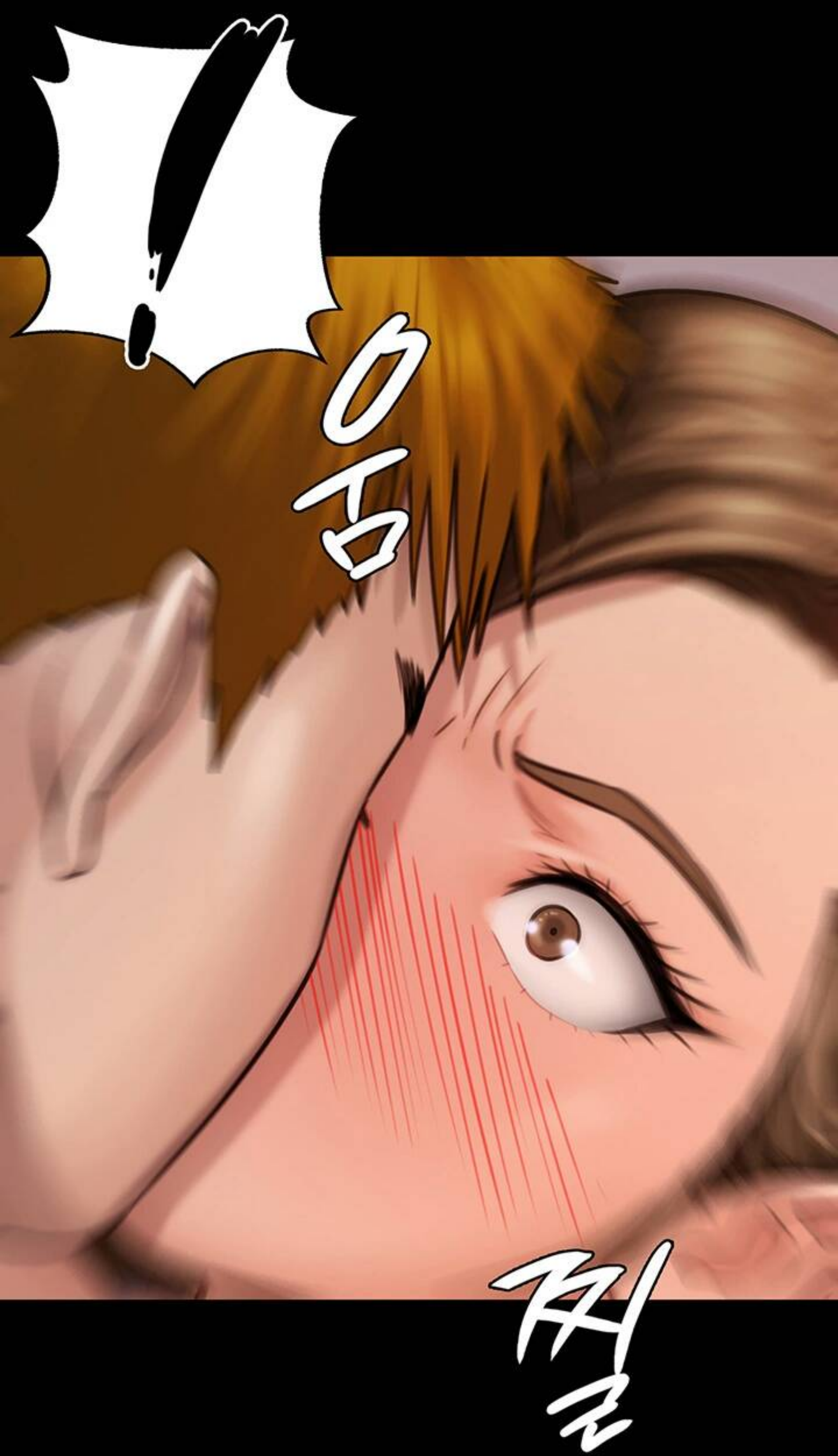
하아...



하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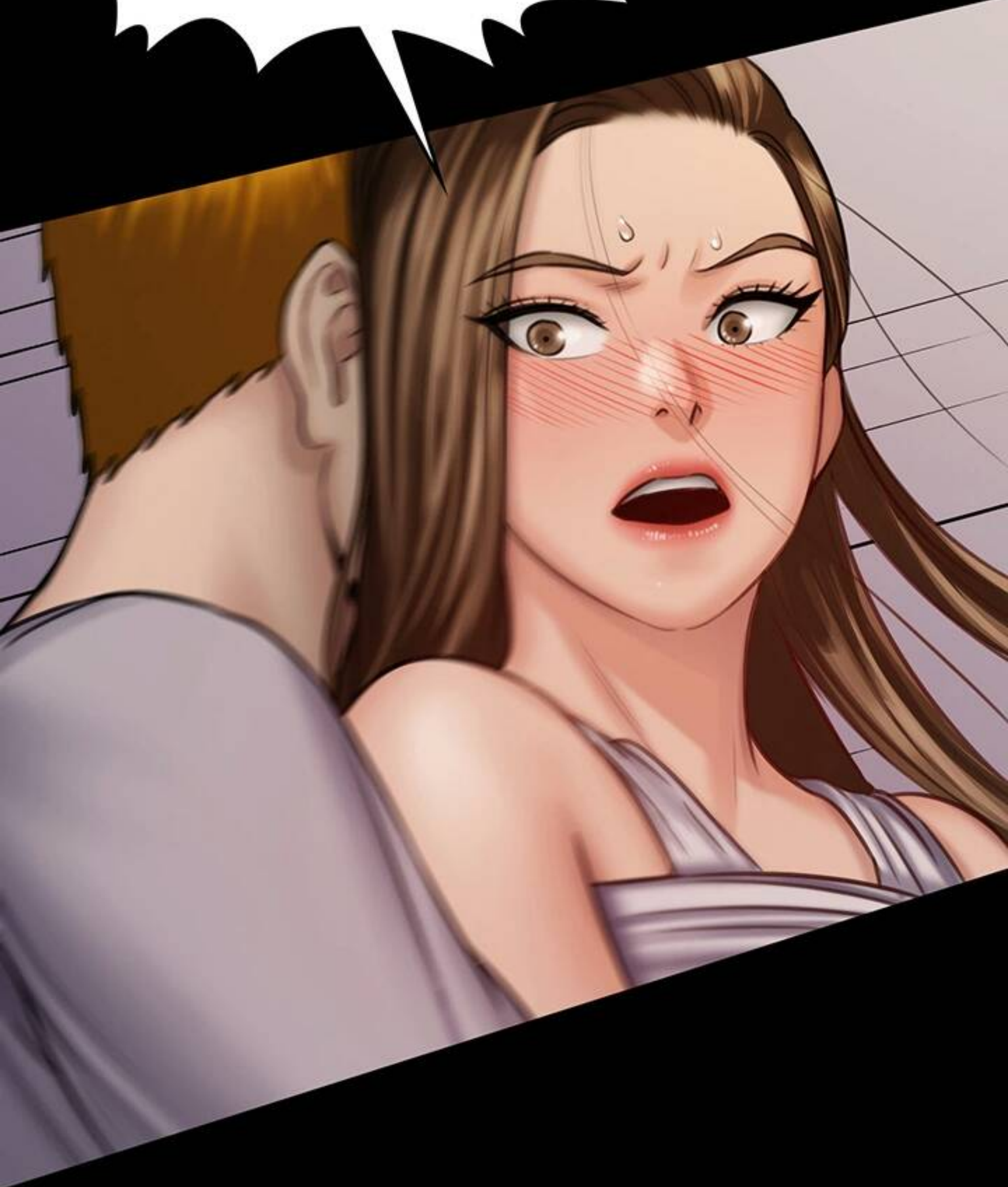
푸푸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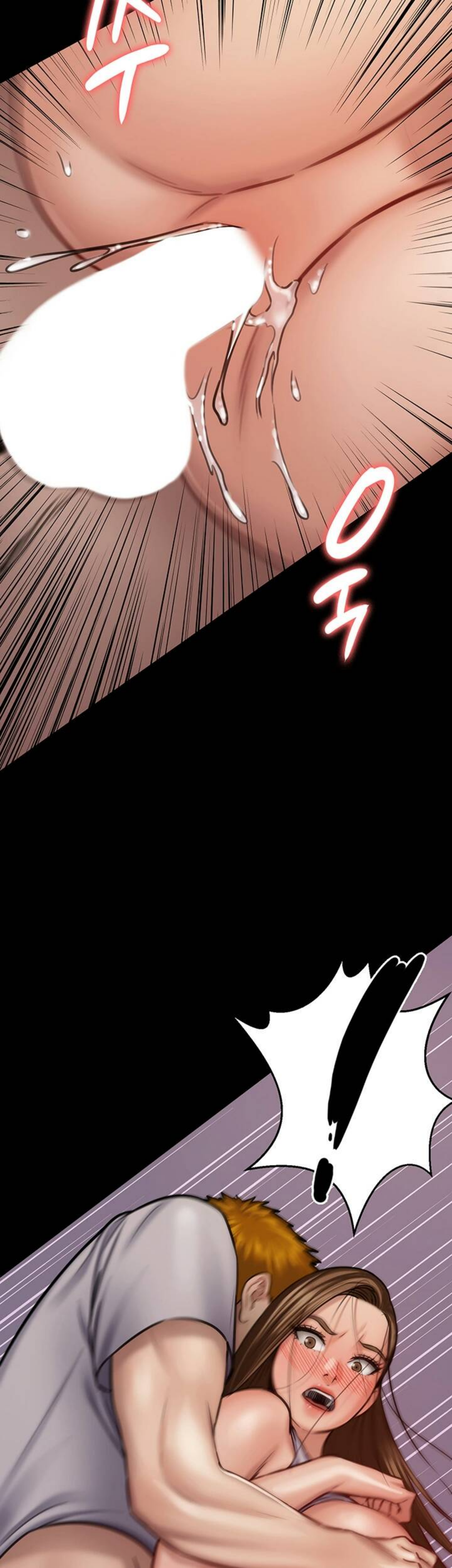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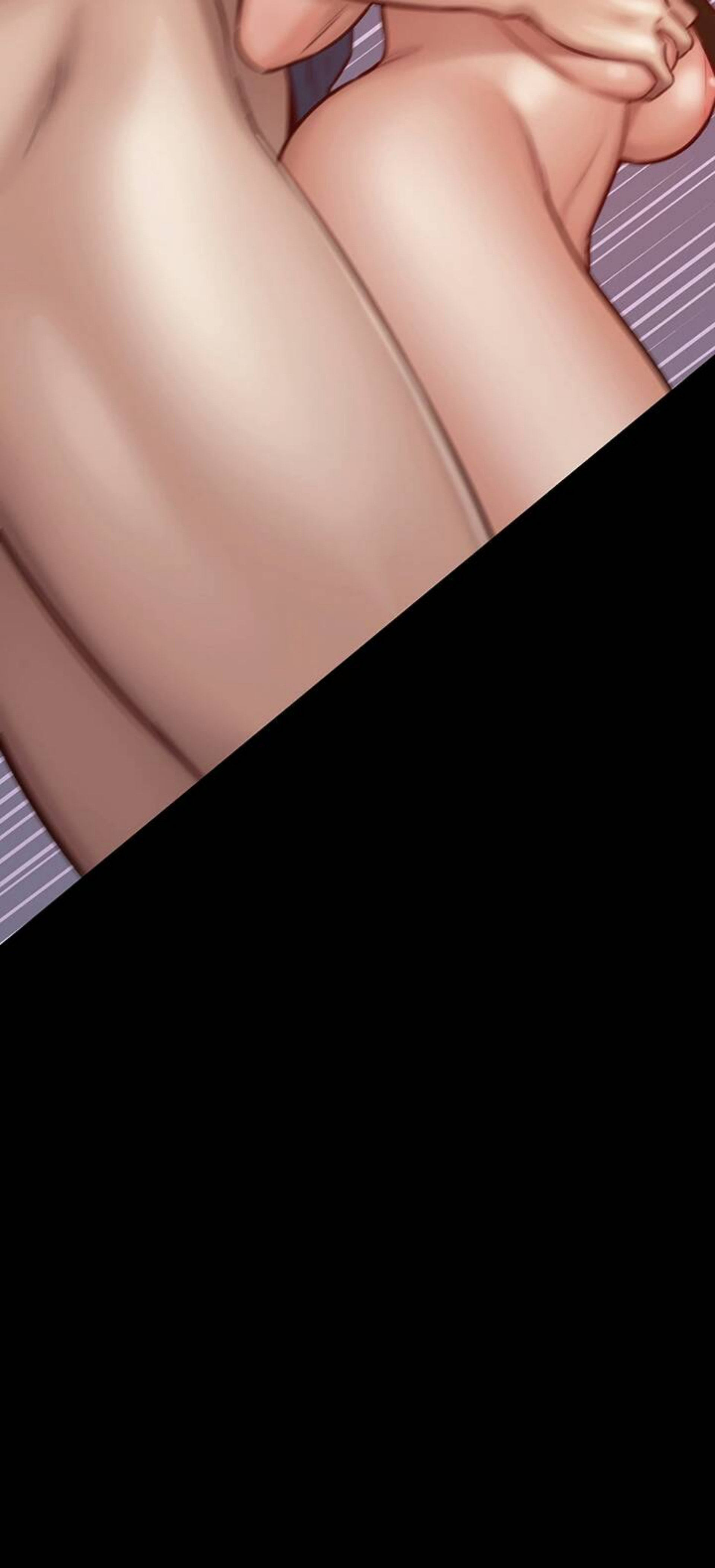




야... 야!
안준표!
너 지금 뭐...







<계속...>

다음화 예고

<달리의 손걸을 뺏은 준표>

스토리 : 활화산

작 화 : 벤프

채색 : 부요부요부

키루가

배경 : 김형빈